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의 관계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윤 경

국문 초록

이 윤 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본 연구는 변화하는 패션 산업의 요구에 맞춰,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해, 소비자 즉, 의복 착장자의 주관으로 평가된 신체를 중심으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총 9명의 '국내에 상주하는 의류학 및 패션 디자인 전공자'를 모집하여 반 구조화 면담과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 파악을 위한 바디 스캐닝을 진행하여 이들의 삶의 경험과 경험적 특수성을 통한 탐색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얻어진 연구자료는 근거 이론을 토대로 귀납적 해석을 통해 주제적 분석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에서 3D 바디 스캐닝과 이상적 신체의 구체적인 관여가 드러났다.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차이가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나, 신체 평가는 단일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신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3D 바디 스캐닝은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의 신체를 바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고,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복 맞음새 추구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신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타인 및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들이 나타났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자체로 인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상적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 및 한국적 이상미의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으며, 의복은 이상적 신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 및 기준이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결과로써 의복 선택이 이루어짐이 밝혀졌다.

둘째,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이 나타났다.

신체 전반의 각 부위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영향을 끼치어 생겨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특정한 의복의 복종, 길이, 실루엣, 악세사리류의 선택 및 회피를 이끌었고, 원단의 소재, 색, 프린트 패턴의 선택 및 회피에도 영향을 끼치었다. 의복 착용을 통한 체형 보정의 기능을 가지는 보정용 의류는 불편함과 직접적인 신체 수정 등의 이유와 속옷이라는 복종 특성이 보정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선택되지 않았다.

셋째,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을 넘어선,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발견 되었다.

의복 사이징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기는 사이즈 맞음새는 특정 브랜드 선택 및 회피를 야기하였고, 프리사이즈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사이즈 맞음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생성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와 일상적 패션 의복을 나누어 사이즈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를 직접 큐레이팅해서 입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지 캐주얼이 맞춤 정장을 대체 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이 변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낮은 관계성을 이끌었다.

신체 관리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완화 하였으나,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의복을 통한 신체 불만족 완화의 역할이 있었다. 패션 이미지를 위해 운동 선택 및 회피를 통한 외모 관리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체를 위해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도 가능하여, 한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체 관리 행동과 의복 관리

행동은 공존하는 개념이었다. 자신의 신체 평가에 따른 패션 유행의 회피 및 관여가 드러났으나, 패션의 유행 자체가 신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는 관계성이 적었다. 구매 빈도와 구매 가격, 구매 장소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고, 계절, T.P.O. 및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형용사적 패션 이미지 또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은 의복의 수선 및 예전의 일대일 맞춤복 제작 방식으로의 회귀 등을 통해 소비자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는 대량 맞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인 신체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통해, 의복과 신체의 관계를 유동적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파악이 의복 구성 및 제작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더 좋은 맞음새를 제공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소비자 중심, 의복 맞음새, 실제 신체,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학 번 : 2016-21681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제 3 절 용어의 정의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의복 맞음새 연구 5
제 2 절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10
제 3 절 의복 맞음새와 바디 이미지 12

제 3 장 연구 방법 16

제 1 절 연구 문제 16
제 2 절 연구 참여자 16
1.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16
2.연구 참여자의 이해 17
제 3 절 자료 수집 절차 18
1.심층 면담 18
2.바디 스캐닝 20
제 4 절 자료 처리 및 분석 20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22

제 1 절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22
1.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비교 22
2. 바디 스캐닝을 통한 '실제 신체' 측정 27
3.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이상적 신체 30
4.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의복 36

제 2 절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 39
1. 특정한 복종, 실루엣, 길이 39
2. 특정한 원단 41
3. 보정용 의류 44
4. 악세사리류 45

제 3 절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 47
1. 사이즈 맞음새 47
2. 시대의 변화 51
3. 의복 관리 행동과 신체 관리 행동 53
4. 패션 및 구매 행동 55
5. 기타: 추구하는 형용사, T.P.O. 59
6.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6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5

제 1 절 요약 65
제 2 절 결론 및 제언 67

참고문헌 70

부 록 80

Abstract 84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 18
<표 2> 각 연구 참여자 주관적 신체 평가 어휘 사용 예 23
<표 3> 본 연구에서 언급된 신체 평가 부위들과 SizeKorea 비교 항목 및 지수 25

그림 목차

<그림 1> Ashdown's (2000) model for development of a sizing system ..7
<그림 2> Ashdown and Loker (2010). Conceptual model adjusted to address issues for a MC TM sizing system 8
<그림 3> Grogan et al. (2013a) Key themes and sub-themes..... 13
<그림 4>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도..... 6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트리 4.0'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 혁신을 가져 오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전망한다(Lasi et al., 2014; 강태진, 2016). 박창규(2018)에 따르면, 제품 생산의 방식은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을 거쳐 개인맞춤(personalization)으로 진입하고 있다. 공급자가 준비해 놓은 여러 옵션 중에 소비자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개별적인 주문에 맞는 제품을 공급자가 생산하는 것이다. 남윤자(2015)는 패션 산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산업 변화를 '최첨단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와 제조업이 완벽하게 융합하는 패션 4.0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혁신적인 미래 기술이 패션과 만나게 되는 패션 4.0 시대에는 개개인의 의복 필요성을 충족 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의복의 미적 우수성 또한 유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동적인 소비자의 역할 에서 능동적인 설계와 디자인으로 확장 하고 있는 소비자들(박창규, 2018)'의 변화에 맞춰 의복의 제조 방법 뿐만 아니라 의복 제조를 위한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김성민, 2017)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 산업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맞음새라면, 가장 알맞은 의복 맞음새가 되는 소비자 중심의 의복 맞음새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Size Korea, Size USA, Size UK 등 대규모 국가적 조사가 실시 됨으로써,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소비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 Actual Body'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 연령, 체형 별 신체 비교 분석 연구 에서부터 3D 스캐닝 기술의 신체 계측 방법(Istook and

Hwang, 2001; Simmons and Istook, 2003)에 대한 연구들까지, 실제 신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을 통해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신체 인지도, 만족도, 이상적 체형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실제 신체'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간의 차이가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복 맞음새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를 연구하는 방식은 주로 전신, 신체 부위, 특정 의복 구성을 위한 신체 부위들로 나뉘어져 연구되고 있어,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신체 평가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인 특성상, 특정 복종, 특정 연령 층 등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져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관적 신체 평가가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에 관여하는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각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부응하는 '대량맞춤' 과 '개인화' 생산을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션 4.0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장 알맞은 의복의 맞음새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실제 신체'에 대한 의복의 적절한 맞음새를 넘어, 소비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와 의복 맞음새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변화하는 패션 산업의 요구에 맞춰 소비자 개개인이 원하는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해, 탐색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개념, 역할 및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즉, 의복 착장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와 의복 맞음새와의 관계를 넘어, 착장자의 주관으로 평가된 신체를 중심으로 착장자의 신체와 의복 맞음새에 관한 깊이 있고 세밀한 관계를 탐색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신체가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신체 사이즈나 체형 등의 신체 묘사(body descriptor)와의 관계를 넘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신체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의 신체와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하고, 이러한 관계 파악을 통해, 실제 의복 구성 및 제작에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의 대입 방안 가능성을 탐색하여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 3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복 맞음새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 관련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문헌자료에 나타난 용어 사용 예를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의복 맞음새 Clothing Fit: 의복 맞음새 평가, 선호도, 만족도, 의복 사이즈 평가 등의 다층적 개념을 포함하여 '의복 맞음새'라 총칭하여 사용하는 바이다.

2) 실제 신체 Actual Body: 직접 측정 및 3차원 바디 스캔을 통해, 인체 측정학적(anthropometric) 방법으로 측정된 신체의 수학적 치수와 이를 객관적으로 분류한 체형을 포함한,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신체를 '실제-신체'라 지칭하는 바이다.

3)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Subjectively Evaluated Body: 앞서 정의한 '실제 신체'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주관적으

로 평가된 신체'라 실용 정의(working definition)하는 바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인한 심리적 원인, 영향 및 결과에 대한 광의의 '바디 이미지(Body Image)' 개념과 구분하고, 지각 신체(perceived body), 신체 인식도, 신체 만족도(Body Cathexis)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인식, 느낌, 판단(Gleghorn et al., 1987; Banfield and McCabe, 2002)을 포함하고, 감정적(emotional)/이성적(rational)평가(estimation) (Thompson and Dolce,1989), 일반적(general)/단기적(state) 평가(Homan, 2016) 등의 평가 방식을 구분하지 않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총칭하는 바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첫째, 선행 의복 맞음새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 개념과 소비자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 의복 맞음새의 관여를 살펴본다. 둘째,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의복 맞음새와 바디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 1 절 의복 맞음새 연구

의복의 맞음새는 신체에 대한 의복의 관계이며(Ashdown and Locker, 2010), 김선영과 남윤자(2012)는 '의복 맞음새란 의복 치수와 의복 형태가 인체에 맞는 모양, 상태, 정도라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복 맞음새는 스타일, 디자인 특징(design features), 그리고 원단의 특성(properties of the materials) 등 의복 고유의 특성(garment dimension) (Ashdown and Locker, 2010)과 의복 착장자의 신체, 그리고 의복 착장 시 맞음새에 대한 기대들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착장 시 원하는 맞음새에 대한 기대를 맞음새 선호도(fit preference)라고 한다(Chattaraman et a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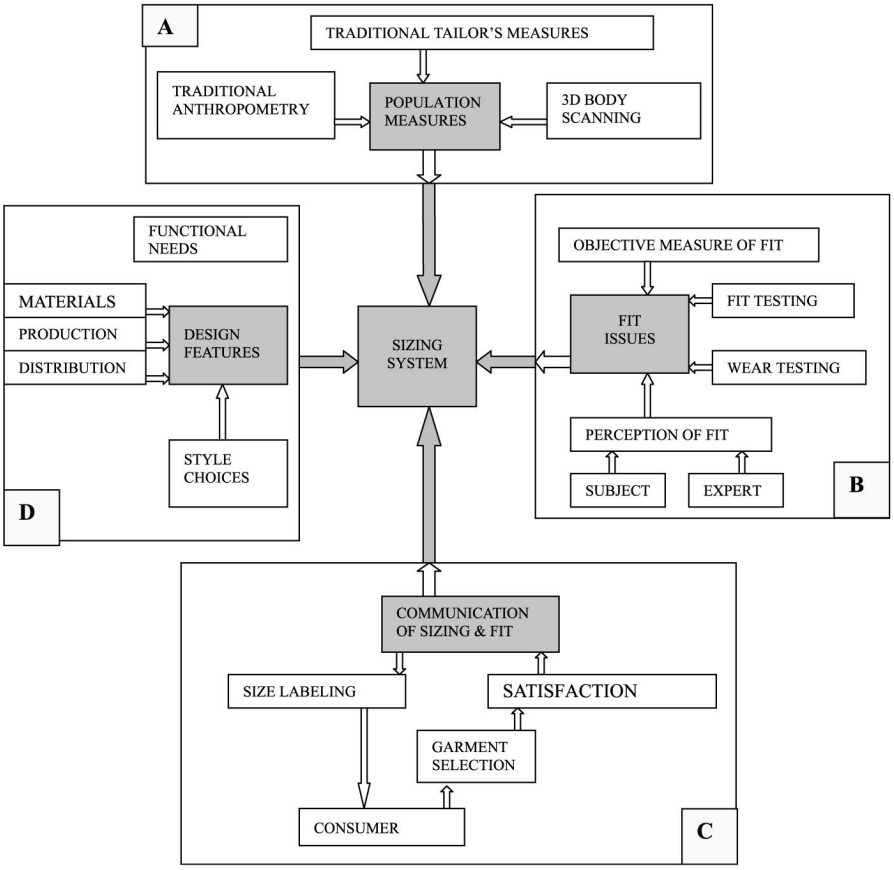
맞음새 선호도는 맞음새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복 맞음새는 좋은 맞음새(good fit)의 기준과 신체에 의복이 어떻게 착장 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의복 맞음새 평가가 달라진다. 소비자의 의복 맞음새 선호는 편안함, 미적 판단 그리고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 지는 주관적 평가이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패션, 문화적 영향, 나이, 성별, 신체 체형,

라이프 스타일이 각 개인의 맞음새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고, 삶의 흐름(life span)에 따라서도 개인적인 맞음새 선호도가 달라진다(Pisut and Connell, 2007; Fan et al., 2004; 석혜정, 2010).

맞음새 평가는 착장자 본인 혹은 전문가들에 의한 외관 평가, 여유분 평가, 동작 적합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각 신체 부위들의 정보와 더불어 맞음새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은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Ashdown and Delong, 1995). 이러한 맞음새 평가의 주관성 배제의 어려움 때문에, 맞음새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슬랙스 맞음새의 정량적 평가 기준들이 설정 된 바도 있다 (김선영, 남윤자, 2012a, 2016b). 또한 의복의 맞음새는 의복의 복종에 따라 기대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장 재킷(김인화, 2015), 팬츠(김민경, 2009), 거들(이준옥, 2001) 등 하나의 의복 아이템에 따른 맞음새 평가 기준들이 만들어져 왔다(이진희, 김윤희, 2016). 특정한 복종에 더해, 의복을 착장하는 소비자의 물리적 신체는 성별, 연령, 비만도 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의복 맞음새 연구에서는 각 타겟 대상의 표준 신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정임과 남윤자(1998)는 남성 클래식 재킷이라는 특정한 복종의 맞음새를 20대 초반의 남성을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맞음새 평가의 기준들은 착장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 사이즈 및 객관적으로 분류 된 체형에 따른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착장자의 물리적 '실제-신체'는 인체 측정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직접 측정 및 3차원 바디 스캔을 통해 얻어진 신체 치수들과, SizeKorea, SizeUSA등의 인체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얻어진 자료, 그리고 인체 체형에 대한 분석과 분류를 통해 얻어지고, 이는 Ready-To-Wear 패션, 대량 생산 의복 제조를 위한 의복 맞음새 구성 및 제조에 사용된다. 타겟 소비자층의 대표 신체, 표준 신체 등을 대변하는 의복 구성 용 더미(dress dummy/tailor's dummy), 피팅 모델, 3차원 핏 모델 등이 기준 신체가 되어 의복의 사이즈가 만들어진다(Ashdown, 2000;

Workman and Lentz, 2000; Petrova and Ashdown, 2008). 신체 사이즈 및 체형이 객관적으로 분류 되어 소비자 대다수를 포함하는 의복의 맞음새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사이즈와 표준 사이즈 등의 의복 사이징 시스템이 사용된다. Ashdown (2000)은 의복 사이징 시스템이 개발되는 과정을 다음의 <그림1>과 같이 모형화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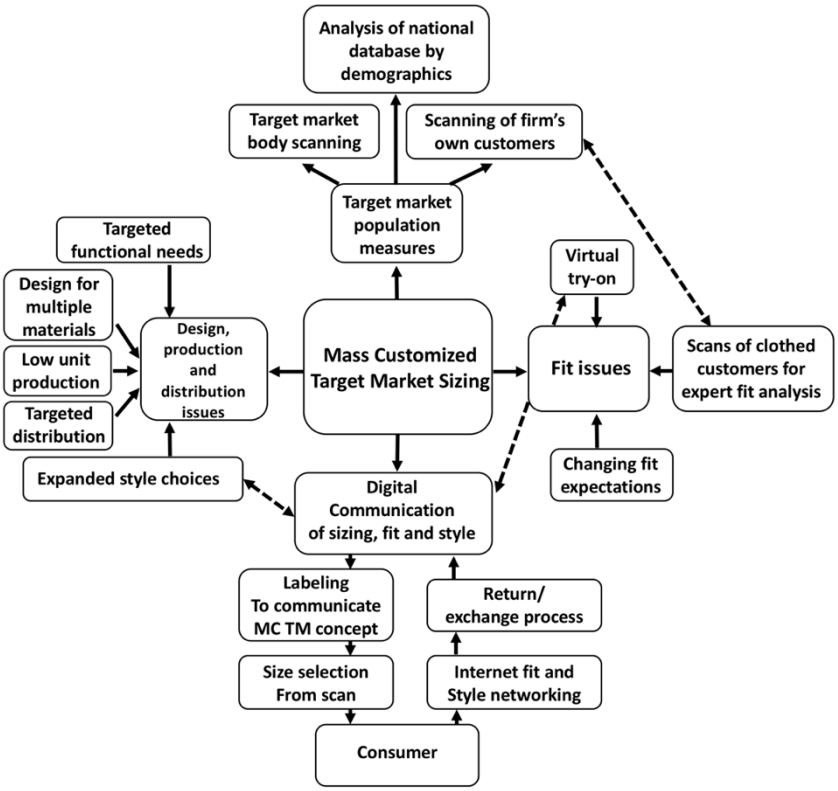


<그림1> Ashdown's (2000) model for development of a sizing system (Alexander et al., 2005 재 인용)

이러한 의복의 사이징 시스템은 의복의 맞음새를 위해 개발 및 연구되고 있지만, 각 제조업체들 마다 의복 사이즈의 일관성이 없이 사용되는 등 의복 사이즈 시스템의 문제점 또한 크게 드러나고 있다(Faust and Carrier,2009; Otieno et al., 2005). Loker et al. (2005) 은 20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타겟 마켓 소비자들의 실제 신체 비율이 핏 모델 및

사이즈 그레이딩 비율과 다르며, 현재의 사이징 시스템이 타겟 마켓 소비자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inley(2003)는 1011 개의 팬츠를 분석하여 같은 Size 4의 팬츠라도 5.27 인치의 가랑이 안쪽 길이(inseam), 13.21인치의 샅 부위 사이즈 차이가 존재 함을 찾아 내었다. Kinley(2010)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150명의 여성 중의 80퍼센트는 현재의 의복 사이즈 시스템에 대하여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있었다.

Ashdown and Locker(2010)는 대량 맞춤화 시대에 타겟 마켓 사이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여, 신체 측정 치수, 의복의 디자인, 의복의 맞음새, 의복 사이즈와 맞음새 정보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의복 사이징 시스템에 관계하는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 개념을 좀 더 구체화 한 바 있다.



<그림2> Ashdown and Loker (2010). Conceptual model adjusted to address issues for a MC TM sizing system.

이들은 의복의 사이즈 시스템을 4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첫째, one-size-fits-all 사이징 시스템은 디자인과 스타일 요소들 그리고 원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한 사이즈의 의복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둘째, ready-to-wear 사이징 시스템은 의류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몰, 미디엄, 라지 및 숫자로 이루어진 특정 카테고리의 사이즈 범위이다. 셋째,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 사이징 시스템은 스몰, 미디엄등의 사이즈와 길고 짧음 등의 의복의 여러 요소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사이징 시스템은 각 의복이 각 개인의 특정한 사이즈에 맞춰지기 때문에 전체 인구 수와 같은 양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모형 역시 소비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rdyn (2003)은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맞음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인 신체 측정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의복 마케터들이 발견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의복 맞음새는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 행동 및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Howarton and Lee, 2010; Shim and Bickle, 1993; Shin and Baytar, 2014; 이진희, 김윤희, 2016), 의복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은 의복 구매 시 가장 자주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Alexander et al., 2005; Anderson et al., 2001; Gardyn, 2003). 미국의 마켓 리서치 회사인 NPD Group은 84 퍼센트의 여성 소비자들은 좋은 맞음새의 의복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함을 밝혔다(Gardyn, 2003).

좋은 맞음새에 대한 많은 평가 요인, 원인 및 영향들이 밝혀져 왔지만, 소비자의 맞음새 선호 평가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에 비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량 생산을 넘어 대량 맞춤을 지향하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의복 맞음새에 관한 소비자/착장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를 반영하려는 연구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본다.

제 2 절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

의복 맞음새를 위한 신체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분류된 물리적 '실제 신체'를 넘어 각 개인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즉,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역할이 고찰되어 왔다. 의복 구성 및 선택에서 착장자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필수 근간 요소 이지만, 소비자들의 의복 선택 및 희망 착의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 인식도 및 만족도, 이상적 신체의 역할이 존재한다.

의복 맞음새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만족도 및 자신의 지각-신체와 관련이 있다(Song & Ashdown, 2013; Feather et al., 1997). Labat & Delong (1990)은 10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Rosen and Ross(1973)의 Body Cathexis Scale(바디 카텍시스 스케일)을 사용하여 22가지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20가지의 신체 부위에 관련된 의복 맞음새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의복 맞음새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나 이들의 세밀하고 복잡한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Grogan et al., 2013a). 박재경과 남윤자(1999)는 20가지 신체 부위별 크기 인식에 따라 희망 착의 행동과 실제 착의 행동을 분석하여 9가지의 의복 형태(몸통밀착원피스, 짧은스커트, 짧은 반바지, 긴스커트, 어깨/가슴 상부 노출상의, 다리밀착무릎슬랙스, 슬리브리스상의, 긴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를 통해 신체 보완을 추구함을 밝혀내었다. 실제 신체 측정 데이터와 자신의 신체 인지도 및 만족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정재은, 이순원, 1993), 정재은과 남윤자(1999)는 성인 여성의 체형 파악과 의복 구성에 필요한 26가지 신체 항목들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가 변화함

을 확인하였으나, 각 신체 항목들의 실제 사이즈는 변화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Chattaraman and Rudd (2006)는 소비자가 패션 선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체형을 연구하기 위해, 개정된 BCS (Shim, Kotsiopulos, and Knoll, 1991)를 사용하여, 상반신, 하반신 신체 전반의 13가지 신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지각-신체를 기반으로 한 의복 실루엣 선택을 연구하여, 낮은 신체 만족도는 의복을 통한 신체 부위 가림(body coverage in clothing)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었다.

Feather et al. (1997) 은 290명의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의 20가지 신체 부위와 의복(슬랙스와 블라우스) 맞음새에 관여하는 13가지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맞음새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Alexander et al. (2005) 은 소비자들의 의복 맞음새 선호도와 바디 타입, 신체 (머리 및 상반신, 하반신, 키, 몸무게, 몸통) 만족도와 바디 쉐입의 상관관계를 밝히며, 자신의 바디 쉐입에 따른 신체 만족도에 따라 의복 맞음새 선호도의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의복 맞음새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정 복종(자켓, 스커트, 드레스, 상의, 청바지와 팬츠)에 대한 Fitted, Semi-fitted, Loosely fitted 라는 3가지 핏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노이경과 송화경 (2017)은 17가지의 신체 항목에 대한 인지 체형, 이상 체형, 신체 만족도와 위의 신체 항목들에 상응하는 재킷 부위 항목에 대한 재킷 맞음새 만족도를 연구하여, 인지 체형과 이상 체형 간의 차이를 신체상 지각 불일치로 정의하고, 이는 실제 신체 크기나 체형보다는 인지하고 있는 신체 크기나 체형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밝히었다. 또한 재킷 맞음새 만족도는 신체상 지각 불일치 정도가 클수록 낮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높은 점을 밝혀내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를 연구하는 방식은 전신, 신체 부위, 특정 의복 구성을 위한 신체 부위들을 나누어 각각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설문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법

은 각각의 신체 부위 및 부분 평가들에 따른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소비자의 주관적 신체 평가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의복 맞음새의 다층적인 특성 상, 특정 복종, 특정 연령층 등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나뉘어져 연구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관적 신체 평가가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에 관여하는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제 3 절 의복 맞음새와 바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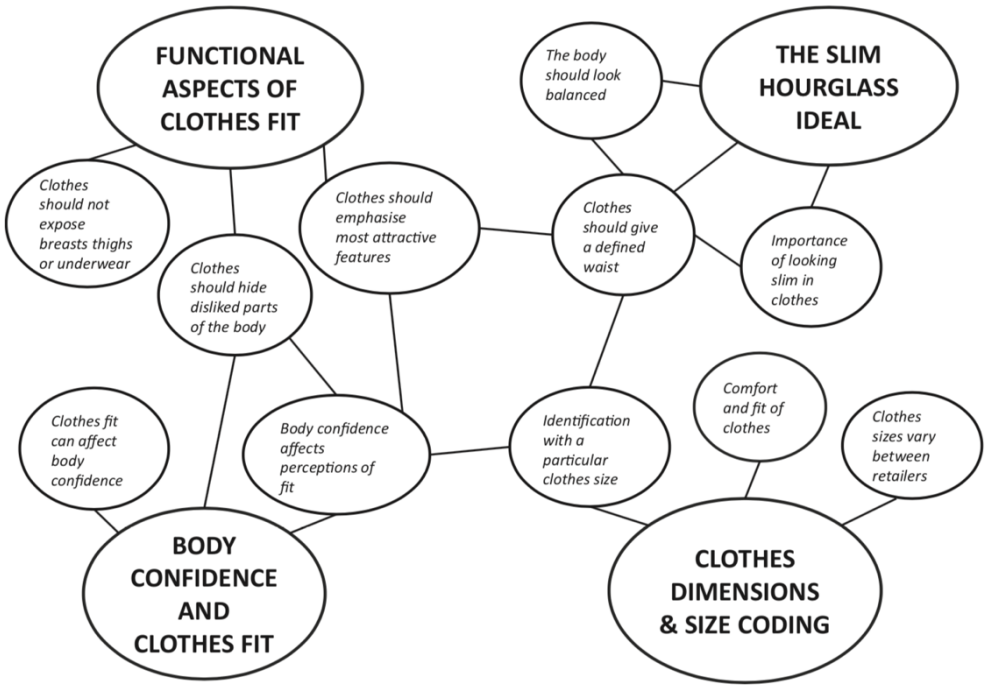
다층적 개념(Multi-Dimensional) 바디 이미지 개념은 각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로써(Fisher, 1970; Thompson, 1990; Cash and Smolak, 2011),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 개념과 중첩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바디 이미지 개념을 이용한 의복 맞음새 연구들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Tiggemann and Lacey(2009)는 의복 선택이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 Cash, 2000)를 통해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들의 신체 불만족, 즉, 부정적인 바디 이미지는 더 많은 신체 가림(body coverage)과 연관이 되어 있어, 의복을 위장 역할로 사용하는 것(the use of clothing as camouflage)과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의 연장선으로 Tiggemann and Andrew(2012)는 의복의 위장 역할이 자기-보고(self-reported) Body Mass Index (BMI: 체질량지수) 및 몸무게와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혀 의복이 여성의 신체 외모 관리(management of body's appearanc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Rudd and Lennon (2000a, 2001b)은 신체 불만족에 따른 적응적 행동으로써 외모 관리 행동(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중 의

복의 역할을 밝히며, 의류학 연구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심상(mental picture)인 바디 이미지 연구가 수용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Grogan et al. (2013a)은 어떻게 신체 만족도가 의복 맞음새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고, 의복 맞음새가 신체 만족도와 어떻게 상호작용(interact)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그림3> Grogan et al. (2013a) Key themes and sub-themes.

이들은 MBSRQ (Cash, 2000)를 통해 각 연구 참여자들의 바디 이미지를 확인하고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는 드레스 맞음새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제 신체와 관계 없이, 큰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작고 쏙 들어간 허리를 가지는 날씬한 모래시계형 신체를 선호하였고 이러한 이상적 신체를 구현하기 위해 의복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의복 맞음새는 불만족스러운 신체 부위를 가려주거나 가장 매력적인 신체부위를 드러내주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었으며, 맞음새 좋은 의복(well-fitting clothes)은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리테일러들(retailers)마다 다른 의복의 사이즈 시스템은 의복 맞음새의 편암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였으나, 의복 사이즈에 자신의 신체를 동일시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바디 이미지는 '실제 신체'와의 비교가 어려워, 의복 구성 및 제작에 필요한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실제 신체와의 관계 파악에 제한 점이 있다. 69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된 MBSRQ는 바디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원인, 결과 요인에 집중되어 있고, 응답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항목은 1가지 전반적 외모 (Overall appearance)와 8가지 신체 (Face(facial features, complexion)/ Hair(color, thickness, texture)/ Lower torso(buttocks, hips, thighs, legs)/ Mid torso(waist, stomach)/ Upper torso(chest or breasts, shoulders, arms)/ Muscle tone/ Weight/ Height)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어, 의복 맞음새를 위한 의복 구성 및 제작에 관여하는 응답자의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해, 자기-보고된 신체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이를 통해 산출된 BMI 이외에는 타당성, 신뢰성이 없다고 밝혀지고 있어(Stommel and Schoenborn, 2009; Bulik et al., 2001; Bowman and DeLucia, 1992), 설문을 통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실제 신체' 비교의 한계점이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신체는 지각-신체, 신체상, 신체 인식도 등의 여러 명칭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신체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뜻하는 바디 카텍시스(Body Cathexis) 및 신체 불만족/만족이라는 개념으로써 학문적으로 연구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정신작용측정(psychometric)면에서, 허영 사이즈(vanity size), 환각지(phantom limb) 개념 까지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바디 이미지' 개념(Fisher, 1970; Cash and Smolak, 2011)과의 구별을 위해, 인체 측정

학적(anthropometric) 방법으로 측정된 신체의 수학적 치수와 이를 객관적으로 분류한 체형을 '실제 신체'라고 정의하고, 이를 제외한 신체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라고 실용 정의하여 사용하는 바 이다.

본 절의 선행연구 고찰을 종합해 보면, 다층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복 맞음새에 대한 다양한 신체의 역할이 존재하며, 크게 객관적으로 측정 및 분류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신체의 역할을 탐색해 보며, 그 중에서도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의복 착장자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그리고 이에 따른 의복 맞음새의 심도 있는 관계 탐색이라는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 및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1806/001-001)을 받아 진행되었다.

제 1 절 연구 문제

선행 연구들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양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관계 탐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2 가지 연구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1: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2: '주관적으로 평가 된 신체'와 의복 맞음새 선택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제 2 절 연구 참여자

1.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내 연구 문제에 가장 심도 깊은 답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지식, 경험,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목적에 따라 의도적 표집

(purposeful sampling)의 한 방법인 눈덩이 표집선정(snowballing sampling)을 하였다(유기웅 외, 2018). 눈덩이 표집법의 방법론에 따라, 의복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 경험 및 경력을 가진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의류학 또는 패션 디자인 전공자 라는 본 연구자의 초기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 연락(personal contact)을 이용하여, 이메일, 전화 그리고 사회 관계망을 통한 연락을 취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연구 대상자를 소개 받도록 하였다(Creswell, 2015/2018b). 전공 및 전문 분야의 특수성에 의해 의복 및 의복의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의류학 및 패션 디자인 전공자'를 1차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또 다른 1차 참여자 선정 기준은 '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이였다. 이는 각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실제 신체'와 비교하기 위해 국내에 위치한 특정한 바디 스캐닝 장소로의 직접 방문이 필요하였고,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와 비교 및 확인을 위함 이였다. 이들 중 '의복 구성 및 제작에 깊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자'를 2차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은 특히 의복 구성(pattern-making)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와 의복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라 사료되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연구 시 얻어진 데이터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주제가 발견 및 관찰되지 않는 데이터 포화 (data saturation) 지점은 최대12 명에서 최소 6명이라는 Guest et al. (2006)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참여자의 이해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이상적인 참여자들로 사료된 총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사용된 연구 참여자들의 가명은 연구 참여자

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 (가명)	성별	나이 (만)	설 명
1	박율	여	33세	공학 및 의류학 전공. 3차원 인체 형상을 이용한 길원형 제작 및 고령 여성 보호복 개발을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여성복 테일러링 강의 및 연구원으로 재직 중.
2	모아나	여	24세	의류학 전공. 청소년의 체형 및 의복 사이즈와 3D 인체형상 데이터를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
3	듄듄	여	27세	패션 디자인 및 의류학 전공. 노년기 체형에 대해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
4	이라희	여	31세	의류학 전공. 의복 그레이딩 및 아동복 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음. 아동복에 대해 주로 연구. 현재 서울 소재의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
5	유하늘	여	33세	순수 미술 및 모자 디자인 전공. 의복을 매체로 한 순수 미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모자 및 악세사리 개인 브랜드 운영 및 패션 쇼-피스 의복 제작 및 협업 중.
6	섹큐게	남	26세	남성복 전공. 해외 런웨이 통신원으로 활동. 현재 개인 브랜드 및 협업 브랜드 운영 중.
7	긴자이	남	22세	다수의 해외 럭셔리 브랜드 의류 구매 경험. 현재 영국의 모 대학에서 남성복 전공 중.
8	황지원	여	50세	의류 소매상 및 편집 샵 운영, 해외 브랜드 바잉 및 유통, 일명 '동대문' 여성의류 도매 유통, 제작 및 사업 운영. 현재 패션과 아이티를 접목하는 핀테크 회사 이사로 재직 중.
9	이지영	여	31세	여성복 전공. 브랜드 컨설팅 및 편집 샵 MD로 활동 중.

제 3 절 자료 수집 절차

1. 심층 면담

2018년 6월 2주간,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약 1시간 가량의 반구조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에 참여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면담 내용이 녹음 되고 있음이 숙지 되어졌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얻은 후 연구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경험(lived-experience)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적 특수성을 동시에 듣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적 질문(probing question)을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심층 면접 개방형 질문들을 수립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특성을 인지하여, 자료의 분석과 수집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면담 진행에 따라 좀 더 심화 된 질문을 유도 할 수 있었다(Griffin, 2007; 유기웅 외, 2018).

다음은 개방형 질문의 예시이다.

- 의복을 고를 때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의복을 제작 및 디자인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신체 사이즈는 어떠한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신 혹은 소비자의 신체 특징들이 의복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가?
-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형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가? 평균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가?
-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나 체형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나 체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의복 맞음새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면담 시 의도적으로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구분하지 않고 '의복 맞음새'라는 표현보다는, '의복'과 '신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면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의복 맞음새에 관여하는 신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

2. 바디 스캐닝

Grogan et al. (2017c) 에 따르면 바디 스캐닝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기-객관화(self-objectification)를 통해 단기적으로 자신들의 신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 더욱 자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기-객관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찰자의 시선을 우선적으로 내재화 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Fredrickson and Roberts, 1997). 이러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바디 스캐닝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면담 이후 바디 스캐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이후의 각자의 편의에 따라 면담 일시와 같은 날 혹은 다른 날에 서울대학교 인체형상분석실에서 바디 스캐닝을 실시하였다. 메디큐브사이져(MedicubeSizer)를 통해 각 연구 참여자들의 약 90가지의 신체 치수가 자동 도출 되었다. 바디 스캐닝 이후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3만원이 지급되었다.

제 4 절 자료 처리 및 분석

각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녹음 자료는 본 연구자에 의해 직접 전사되어 면담 시 작성하였던 메모들과 함께 연구 자료화 되었다. 전사된 연구 자료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토대로 반복적 비교(constant comparison) 되었다(Strauss & Corbin, 2001).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줄 단위(line by line) 분석과 전사된 내용 들에서 나타나는 주제, 키워드, 유형들을 분석하여 큰 패턴이나 유형화 가능성을 살피고 개념적으로 범주화 하는 1차 개방 코딩(open coding)을 통해 범주화 되었다. 이 후 개념적 범주 들은 질적 연구 분석

특성에 따라 귀납 논리에 따른 해석적 접근을 통해 축 코딩(axical coding)과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하여 범주 들간의 관계성 파악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을 통한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이 되었다(Creswell, 2007/2010a, 2015/2018b). 질적 연구의 타당도 전략을 다각화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자료에 대한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 세세하고 풍부한 심층 묘사(rich description)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의 해석의 편향성(bias)을 인지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치였다(Creswell, 2007/2010a, 2015/2018b; 유기웅 외, 2018).

바디 스캐닝 결과로 얻어진 메디 큐브 사이져가 제공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 치수는 사이즈 코리아(http://sizekorea.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7차 인체치수조사)와 비교 분석되어 연구 참여자의 '실제 신체'가 전체 인구 통계 데이터에서 분포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각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묘사함에 있어서 사용하였던 어휘 사용의 예 들은 사이즈 코리아 항목 및 지수들과 비교되어,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 파악에 사용되었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의복 맞음새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해 본 결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 그리고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라는 3가지 개념적 범주가 나뉘어 졌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

제 1 절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본 절에서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제 7차 인체치수조사)와 각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비교 분석하여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에 더해, '실제 신체' 측정을 위한 바디 스캐닝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차이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다음에 오는 4가지 하위 개념 범주를 통해 탐색해 보았다.

1.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비교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특정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휘 사용을 통한 묘사를 통해 파악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단일 신체 부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각 신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표 2>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자신의 신체 묘사에 대한 어휘 사용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각 연구 참여자 주관적 신체 평가 어휘 사용 예

	1. 박율	2. 모아나	3. 듄듄	4. 이라희	5. 유하늘	6. 섹큐게	7. 긴자이	8. 황지원	9. 이지영
머리		작다	크다 / 길다						얼굴이 작다
어깨			키에 비해 좁다						좁다
가슴			키에 비해 작다					크다	
팔둘레				얇지 않다					얇다
손목							얇다		
허리	되게 가늘다		가늘다						얇다
배						배 나오는 것 신경 쓰는 부분			
엉덩이	되게 크다 / 허리 대비 크다	실제로 크다		크다		뚱뚱해 보일까 봐 신경 쓰는 부분			
허벅지	되게 굵다 / 허리 대비 굵다	굵다 / 실제로 굵다	두껍다 / 종아리 대비 두껍다 / 키에 비해 두껍지 않다.	두껍다 / 평균치 이상이다 / 컴플렉스이다					
종아리			얇다 / 허벅지 대비 두껍지 않다		굵다				
발목							얇다		
발		발 볼이 두껍다		발 볼이 두껍다					
키					작다				크다
팔길이									길다
다리 길이									길다
신체 전반					뚱뚱하지 않은 편이다	뚱뚱하다			납작하다 / 말랐다
하체 전반	컴플렉스 있음	컴플렉스 있음		날씬한 편이 아니다			말랐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여성 4명은 자신의 허벅지 사이즈에 대하여 '굵다/두껍다'라는 평가를 하였다. 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하반신에 대하여 실제 보다 '굵다/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허벅지는 가장 강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체 부위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서민정, 마카베 하루코, 2004; 정재은, 남윤자, 1999)과 일치 하였다. 그러나 단일 허벅지 부위에 대한 굵기 인식은 허리, 종아리, 키 등의 다른 복합적인 신체 부위들 간의 비교로 인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자신의 허벅지가 "되게 굵다" 라고 평가하는 박율의 경우, "되게 가늘다" 라고 평가하는 자신의 허리 사이즈에 대비하여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되게 굵다"라는 평가 하고 있었다.

> 박율: 엉덩이 둘레나 허벅지 둘레 이런 부분은 거의 평균에 가까워요. 근데 허리 둘레가 확 작아지니까, 그 허리 둘레에 맞춰서 내 엉덩이와 허벅지는 커. 그래서 이게 나의 컴플렉스야.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듄듄 또한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종아리 대비"로는 두껍고, 자신의 "키에 비해 두껍지 않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는 단편적인 단일 신체 부위 사이즈 평가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각 연구 참여자들이 사용한 자신의 신체 묘사에 대한 어휘 사용의 예와 '실제 신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바디스캐닝와 메디큐브사이져를 통해 얻어진 연구참여자들의 신체 치수 데이터를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연령별 표준 신체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신체에 대한 묘사에 대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과 신체 연구에서 쓰이는 학문적 용어들 간의 비교는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였다. 이를 위해, 2명의 교수진과 1명의 박사 과정 생으로 이루어진 신체 연구 전문가 3명의 도움을 얻어,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체 치수 데이터 중 비교 가능한 신체 항목 및 지수들이 선별되었다. 아래의 <표 3>은 각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시 언급한 신체 부위들과 이들의 비교를 위해 선별된 신체 및 지수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본 연구에서 언급된 신체 평가 부위들과 SizeKorea 비교 항목 및 지수

신체부위	사이즈 코리아 비교 치수 및 지수 항목
머리	머리 (작다, 크다) : 머리둘레의 측정값을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한 후, 두신지수를 확인하여 자신의 몸에 대한 머리의 비율이 큰지 최종적으로 확인.
어깨	키에 비해 좁다 : 어깨너비/키 좁다 : 어깨너비/키
가슴	가슴 (작다, 크다) : 젖가슴둘레, 젖가슴두께, 젖가슴너비, 젖가슴둘레/몸무게, 젖가슴두께/몸무게, 젖가슴너비/몸무게, 가슴둘레, 가슴두께, 가슴너비, 가슴둘레/몸무게, 가슴두께/몸무게, 가슴너비/몸무게
팔둘레	팔둘레 얇다 : 위팔둘레, 위팔둘레/몸무게
손목	손목이 가늘다 : 손목둘레, 손목둘레/몸무게
허리	허리 가늘다 : 허리둘레, 허리너비, 허리두께, 허리두께/너비, 허리둘레/몸무게, 허리너비/체몸무게, 허리두께/몸무게, 배꼽수준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너비, 배꼽수준허리둘레/몸무게, 배꼽수준허리너비/몸무게, 배꼽수준허리두께/몸무게
배	배 나왔다 : 배둘레, 배두께, 배너비, 배둘레/몸무게, 배두께/몸무게, 배너비/몸무게, 허리두께/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두께/허리너비
엉덩이	엉덩이 크다 : 엉덩이둘레, 엉덩이너비, 엉덩이두께, 엉덩이두께/너비, 엉덩이둘레/몸무게, 엉덩이너비/몸무게, 엉덩이두께/몸무게 허리대비 엉덩이가 크다 : 허리둘레/엉덩이둘레
허벅지	허벅지 굵다 : 넙다리둘레, 넙다리둘레/몸무게 허벅지가 허리대비 굵다 : 넙다리둘레/허리둘레 허벅지가 종아리대비 두껍다 : 넙다리둘레/장딴지둘레 허벅지가 키에비해 두껍지 않다 : 넙다리둘레/키
종아리	종아리 굵다, 얇다 : 장딴지둘레, 장딴지둘레/몸무게 종아리가 허벅지 대비 두껍지 않다 : 장딴지둘레/넙다리둘레
발목	발목 얇다 : 종아리최소둘레, 종아리최소둘레/몸무게
발	발볼이 넓다 : 발너비
키	키가 크다, 작다 : 키 평균과 비교
팔길이	팔이 길다 : 팔길이, 팔길이/목뒤높이
다리 길이	다리가 길다, 짧다 : 다리가쪽길이, 다리가쪽길이/목뒤높이
신체 전반	BMI(아시아인 기준) : 18.5미만 저체중/18.5이상 23미만 정상/ 23이상 25미만 과체중/ 25이상 30미만 비만1/ 30이상 비만2
하체 전반	하체 전반 : 다리관련 측정 치수 및 지수치 전반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자신의 신체 부위들과 이에 대한 실제 신체 치수 및 지수, 그리고 이 둘의 비교를 위해 선별 된 사이즈 코리아 신체 항목 및 지수들은 <부록 1>에서 부터 <부록 4>까지에 자세히 수록되었다. 본 연구 구성의 특성 상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각 연구 참여들의 모든 신체 치수 및 항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구 결과에 관련된 신체 치수 및 항목 정보들만 공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나, 정확한 일치도는 없었다. 본 연구의 발견은 노이경과 송화경(2017)의 연구에서 연구 피험자들의 불만족스러운 경향을 나타내는 신체 항목 대부분이 실제 신체 크기 분포로는 크거나 굵은 집단에 속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선상에 있었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 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복합적인 평가였고, 이에 따른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의 관계는 좀 더 다차원적인 관계를 드러내었다.

박율은 자신의 허벅지 사이즈가 한국인 평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허리가 얇기 때문에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다는 평가로 나타났다. 만 30대 여성인 박율의 실제 허벅지 사이즈는 30대 한국인 여성 평균 '넙다리둘레' 보다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박율의 "허벅지가 굵은 편이다"와 "한국인 평균이다"라는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율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키에 비해, 내 몸에 비해서 굵지 않다"는 표현은 박율의 '넙다리둘레/몸무게, 넙다리둘레/허리둘레, 넙다리둘레/키'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었다.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다"라고 평가한 듄듄의 경우 또한 자신의 단일 허벅지 사이즈에 대한 평가가 존재 하였지만,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에

대비한 평가도 존재하였다. 듄듄은 자신의 키가 작은 편이 아니 여서 허벅지 사이즈의 절대값이 얇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과 함께 "허벅지 절대치가 엄청 두껍기 보다는 종아리 대비로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라고 표현 하였다. 듄듄의 '넙다리둘레/장딴지둘레' 확인 결과는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20대 여성 평균 지수보다 높게 나타나서, 허벅지 사이즈가 종아리 대비 두꺼웠으나 듄듄의 실제 허벅지 사이즈는 20대 여성 평균 수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듄듄의 신체 평가는 실제 신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만 30대 여성인 이라희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즉 "허벅지와 엉덩이가 평균치 이상"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이라희의 실제 허벅지 사이즈는 30대 여성 평균 수치보다 높았지만, 엉덩이가 평균 이상이라는 말은 엉덩이 크기 비교를 위한 '엉덩이둘레, 엉덩이너비, 엉덩이두께, 엉덩이두께/너비, 엉덩이둘레/몸무게, 엉덩이너비/몸무게, 엉덩이두께/몸무게' 지수 항목들과 비교한 바, 모든 항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들에 대한 평가는 실제 신체 부위 사이즈들과 차이가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신체 부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단일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신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짐이 발견되었다.

2. 바디 스캐닝을 통한 '실제 신체' 측정

3D 바디 스캐닝은 의복 맞음새 연구를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Petrova and Ashdown, 2008; Loker et al., 2008) 의복 맞음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작 지점이라 여겨지고 있다(Apeagyei, 2010; Loker et al., 2004). 신체적 접촉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 신체 부위의 치수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통적인 줄자를 이용한 직접 측정 방식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CAD 패턴

디자인 및 패턴 생성 테크놀로지들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Istook and Hwang, 2001; Simmons and Istook, 2003). Grogan et al. (2017c) 은 바디 스캐닝의 시각적 결과물들은 거울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는 것보다 더 종합적인 시점 및 시각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자신 이외의 시점 및 시각에서 자신의 신체를 바라봄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 하였고, 바디 스캔을 통해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 긴자이: 항상 드는 생각이... 뭔가 여자친구나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랑 같이 걸어 다니면, 나는 이렇게 정면으로 나를 볼 때 이렇게 내 얼굴이 보일 텐데.. 그 사람은 나를 밑에서 위로 바야 하니깐, 그 각도에 따라서 밑에 가 더 부각돼서 보인다든지, 위에서 저를 내려다 보면 또 다르게 보일꺼니깐...

> 유하늘: 내가 나의 완벽한 내 모습을 볼 수 없자나요. 셀카는 거울처럼 좌우가 바뀌어서 찍히는 거자나요... 거울도 왜곡이.. 다...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는 거니까.. 거울로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는게 아니고 또 남이 내 얼굴을 보는 거랑 다른 거자나요. 전 그래서 바디 스캔을 해 보고 싶은 건데..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바디 스캐닝을 통한 신체 측정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존재 한다. Loker et al. (2004)의 연구에서 35-55세의 203명의 여성 대부분은 바디 스캐닝에 대한 낯설음과 불안함을 드러내긴 하였으나 바디 스캔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Grogan et al. (2016b)의 연구에서 91명의 여성들은 스캔 과정을 불편해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쉐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기를 희망하였으나 자신들의 바디 스캔 된 신체를 보았을 위협적이고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디 스캐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보여졌다.

> 섹큐게: 바디스캐닝에 대해서 대개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자나요... 근데 어느 정도 성기까지 보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치심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뭐 거울을 놓고 봐도 절대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자나요.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는 가능한데.. 그럼 그건 또 3D가 아니라 2D 자나요. 나의 완벽한 3차원적인 뒷 모습을 볼 수가 없자나요.

바디 스캐닝은 자신의 프라이벳 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조건 하에서 라면, 자신의 실제 신체를 객관적인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보여지고 있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의견으로 바디 스캐닝 시, 객관적인 신체 측정을 위해 착용하는 바디 스캔 측정복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박율: 나는 내 가슴은 브라를 한 가슴이라고 생각하는데, 눈도 아이라인까지도 눈이고, 힐도 내 뼈고... 근데 [바디 스캔 측정용] 브라를 입으면, 내가 분명히 B 컵 이였는데, 그걸 입으면 A 컵 되요. 그래서 왜 굳이 그걸 베껴 가지고 바디를 찍는지 이해가 안가요...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브라를 하자나요. 미국이야 뭐 안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노브라로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바디 스캐닝 테크놀로지는 의류 산업에서 의복의 맞음새를 시각화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Loker et al., 2005), 소비자들이 의복의 정확한 맞음새와 올바른 사이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Ridgway,2018). 그러나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소비자의 신체를 측정하고 분류하는 것은 대량생산 RTW의복과 기능성 및 특수 의복을 위한 객관적인 신체 측정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대량맞춤'과 '개인화' 생산을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션 4.0 시대에, 과연 소비자가 보정용 의류 착용 없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제 신체에 기반한 의복 맞음새를 원하는 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Shim and Lee (2011)는 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의 실제 신체와 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신체를 3D 버츄얼 모델로 비교 제시함으로써, 의복 맞음새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 지각 감소에 소비자의 실제 신체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혀 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실제 신체 반영에 있어서, 기존의 바디 스캔 측정복들 - Lycra scanning suit (Simmons and Istook, 2003), 캡이 없는 브래지어와 신체를 압박시키지 않는 면 팬티(서민정, 마카베 하루코, 2004), SizeKorea 3차원 인체 측정 스캔복 (여성: 스포츠 브라 및 밀착 트렁크 하의/ 남성: 밀착 트렁크 하의)-을 착장하고 측정된 객관적인 '실제 신체'를 넘어,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 하는 3D 바디 스캐닝은 소비자의 이상적인 신체와 실제 신체 사이의 간극을 좁혀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3D 바디 스캐닝의 정확하고 신속한 실제 신체 측정의 역할 보다는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 하는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복 맞음새 추구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3.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이상적 신체

이규은 외는(2005) 364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지하는 체형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이 일치하게 응답한 대상자는 11.2%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일치하는 응답을 얻어내었다. 본 연구의 다수의 참여자들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가 존재함을 밝히었다.

> 이지영: 저는 사실 제 몸에 그렇게 불만은 없지만, 좀 희망사항대로 된다면, 좀 키도 작았으면 좋겠거든 요... 키도 좀 작고, 좀 살이 있어도 예쁜 사람들 있자 나요... 그냥 굳이 살 안 빼도 예쁘 면은 그게 더 여성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구요. 정말 패션계에서 예쁜 거 말고, 그냥 사람으로써 예뻐 보이는 사이즈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 듄듄: 그 때 그 때 달라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안 변하는 것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막 다리가 길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뭔가 가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팔뚝 두꺼운 게 이상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라희는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그 안에서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한다고 밝혀주었고, 유하늘, 섹큐게 그리고 긴자이 또한 이상적인 신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자기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이라희: 저는 엄청 키가 크고 막 그런 스타일 정도 까지 제 몸이 이상화 되기를 바라지는 않고요... 자기 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키가 더 커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 몸에서 체중과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평균치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엄청 예뻐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뼈를 잘라서 키가 크고 싶다는 생각은 없잖아요.

> 유하늘: 자기 신체 사이즈가 자기 이상적인 바디에 영향을 미치냐? 저는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좀 키가 작은 사람은 크게 되고 싶어하고. 보통 되게 큰 사람들은 작아지고 싶어하고... 안 가진 부분들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 섹큐게: [이상적인 신체]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자나요? 어느 정도... 나보다 큰지 작은 지는 알자나요.

Petroff et al. (2011) 에 따르면 각 개인의 실제 BMI를 통해 원하는 이상적 BMI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 자신의 신체적 특징들이 이상적 신체 형성에 강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라희를 통해 쾌적한 삶을 위한 건강한 신체가 이상적 BMI를 가진 신체에 관여 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 이라희: 굳이 뚱뚱하다 날씬하다 물어보면 뚱뚱한 것 보다는 날씬한 게 좋겠지만... 이게 BMI로 정상 체중이 있고 과체중, 저체중, 비만이 있자나요. 제 생각에 인간이 먹고 살 정도로 자유롭게 먹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상과 비만, 그니까 초기 비만 정도 인 것 같애요. 정상부터 과체중까지의 상태가 사실 생활하고 먹고 뭐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가장 없고 정상 체중 아래로 내려가면 은 제가 경험 했을 때에는 건강이 좀 너무 안 좋아 졌어요... 사람이 힘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프고... 그걸 유지하는데 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정상 체중에서 과체중 사이에 있는 범위가 가장 삶을 쾌적하게 누리는 이상적인 체중 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이상적 신체 이 외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 신체의 원인들(동료 및 유명 연예인들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 서양 미의 기준)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원인들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Fardouly and Vartanian (2015)의 연구에서, 연구 피험자들은 가까운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상향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 주변의 동료 및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박율: 그냥 딱 봐도 늘씬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는 내가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막 핫팬츠 같은 걸 입으면 주위에 늘씬한 애들을 보면은 '어, 나도 저렇게 입고 싶은데', 거울을 보면 그게 아니니까...

Brown and Tiggemann (2016) 또한 매력적인 동료와 유명 연예인(celebrity)의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신체 만족도에 해로운(detrimental) 영향이 끼쳐 짐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미디어의 이상적인 체격(physique)에 대한 묘사(portrayal)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의 원인(Want, 2009; Grabe et al., 2008; Dittmar, 2007; Groesz et al., 2002)이 되었다.

듄듄: 나 십대 때 '원더걸스' 엄청 유행 했었는데, 그 때 '소희' 다리가 엄청 예쁘다고 많이 했었어요. 약간 허벅지 사이 떨어져 있고 딱히 굴곡 없는 일자.

모아나: 한국 연예들이 나오는걸 봐도 굉장히 말랐는데, 굴곡진 체형이 자나요. 그래서 딱 요즘 얘기하는 팔다리 길고 말랐는데 가슴 이랑 엉덩이는 굴곡져 있고. 딱 이런 거를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몸에서 그 거랑 벗어난 부분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Owen and Spencer(2013)는 대중 문화에 만연해 있는 마른 모델들을 보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 염려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신체는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를 비교 하게 함으로써 신체 불만족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히었다. 건강한 몸무게를 가진 모델들을 보여준 연구 참여자들이 마른 몸무게를 가진 모델들을 보여준 연구 참여자들보다 좀 더 건강한 이상적 신체를 가지게 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유명 연예인 신체의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나타났다.

> 박율: 예전에 '유이' 꿀벅지 유행 했을 때, 저는 그 때 최초로 제 허벅지가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깐 예전에는 내 허벅지가 제일 싫었고, 막 이렇게 다 싫었는데, 사람들이 '어, 꿀벅지가 되게 예뻐' 라고 하니까, '어, 그렇게 보면 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깐.... [근데 꿀벅지 유행이] 지나가서, 또 다시 허벅지가 문제가 됐어요.

모아나는 이러한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정확하게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 모아나: [연예인을 예로 들면] 딱 모두에게 통용 될 수 있는. 하나 하나 디테일 하게 설명 하면은 안 되는데, 연예인은 다들 시각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깐, 자꾸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아나도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신체, 즉 "예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명 연예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 모아나: 그 사람이 예뻐서 그 바디가 예뻐 보이는건지, 아니면 그 바디가 이상적 이라서, 예뻐서,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바디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정유미'가 안 예뻐 보이거든요...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하면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Hausenblas et al. (2002) 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 추구하는 전형적인 매력성에 관한 미디어 이미지에 노출되는 것은 심리적인 웰빙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자신의 몸무게와 신체 쉐입에 관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김재숙과 이미숙(2001)은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관여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와의 불일치 정도가 청소년의 신체 평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서구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묘사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모아나와 듄듄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상적인 신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

> 모아나: '세일러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세일러문'이랑 그런 디즈니 여자나, 상체 요만 하고 다리 이만 하자나요. 나도 크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크고 나니깐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다리가 길지 않더라구요.

> 듄듄: 약간 사회적인 이상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다리 길어야 되고 허리 얇아야 되고 막 이런 거쟈나요. 그리고 사실 그것 따라 달라지는게, 삐쩍 마른 게 유행하다가 또 최근에 다시 약간 볼륨 있는 거 유행 하자나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싸이월드 이 시절의 스타들은 엄청나게 얼짱 막 이런 애들, 엄청 말랐는데, 지금은 또 '킴 카다시안' 같은 몸 이 막 올라오자나요.

위의 모아나와 듄듄의 예에서, 본 연구에서 이상적 신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서양 미디어의 영향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이 사료되었다. Webb et al. (2013)에 따르면, 이상적인 신체는 민족 집단(ethnic group)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 중의 하나인 '한국인'이라는 점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 듄듄은 서양에서 정해 놓은 신체 미의 기준을 따르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듄듄: 서양 문화가 주류 자나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밖에[서양 문화의 이상적 신체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애. 만약에 막 약간 먼저 산업화 되고 이런 게 동양인 이였다면, 동양 쪽 이였다면, 그런 기준

이 되어 있지 않았을 까요?... 머리 납작해야 되고. 납작할 수록 좋고.

섹큐게는 이상적인 신체에 대해, 서양 신체 및 "길어 보이는" 신체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두고 있는 패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주었다.

섹큐게: 한국... 그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애. 왜냐면. 아무리 한국 모델 애들이 얼굴이 작아 보았자 서양 얼굴 작은 애들을 못 이기 자나요.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서양 애들이 훨씬 더 딱 옷을 입혀 놨을 더 길어 보이니깐...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또 디자인 할 때, 바디를 그릴 때, 항상... 그 비율보다 좀 더 길게 그리는 거에 연습해 왔자나요. 거기에서 오는게 아닐까? 길어 보이는게 좋다. 길게 보이는 게 더 옷 테 가 난다 이러면. 어쩌면, 교육에서 온 거 아닌가...

듄듄과 섹큐게 이외에도, 이상적 신체에 대한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의견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밝혀 주었다.

모아나: 우리나라는 동양 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적인 미를 추구해서 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더 각박하다고 생각해요.

섹큐게: 한국은 단일 민족에 다가 뭐 레이스[인종]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몸의 형태가 사람마다 매우 막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딱 하나의 기준이 생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막. 뭐 진짜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유하늘: [한국인은] 다 비슷한 거 같애요. 체형이 아주 살이 찌던지 뭐 하던지 말던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지하철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야기 하는데 한 명이 앞에 가고 아 막 애들이 "쟤 다리 진짜 이쁘다! 엄청 예쁘다!"고 해서 딱 쳐다봤다. 근데 다 비슷해 네 명이. 근데 그런 자기네들 만의 미묘한... 자기들끼리는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본 연구에서 의복은 이상적 신체 생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라희: 이건 진짜 제 경험에 의거한 것인데, 55키로 정도 나가면 그냥 옷을 입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정상 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애요. 정상에서 쪼끔 더 말랐을 때가 더 예쁘긴 한

데, 좀 오버한다고 해서 옷이 되게 안 예뻐지지는 않으니까요.

유하늘: 여자가 큰 옷을, 마른 애들이 입었을 때 핏이 이쁜 거잖아요. 그러니깐 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자는 옷을 크게 입어도 몸 때문에 크게 입는다기 보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항상 모델들은 마르고 그런 바디에서, 그렇게 해야 예쁘게 스타일링이 돼있고 디자인이 다 돼있으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큰 옷 입는다고 해도 전제는 좀 마르고 몸이 어느 정도 얇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기는 한 거 같은데 확실히.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신체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타인 및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들이 나타났고, 이상적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과 같은 인종 및 체형이라는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해서 더 각박한 이상적인 미가 존재한다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 또한 의복이 이상적 신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4.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의복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의복의 관여가 드러났다. 한번 생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념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이에 따라 생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고정된 개념이 였으며, 이는 의복 선택의 결과로 이어졌다.

유하늘: 어렸을 때 제가 뚱뚱했어 가지고... 어렸을 때 뚱뚱하다고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뚱뚱한 거에 대한 되게 그런 압박이 좀 있어요, 뭔가 살이 찌면 안된다... 크게 입으면 왠지 몸이 거기에 맞춰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 딱 맞는 걸 사던지 아니면 조금 작은 걸 사요...

박율: 한번 바디 이미지가 생기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같은 종류[의 의복]를 입는 걸, 전 제 동생을 보고 느낀 게, 걔가 허리가 23이에요... 근데 '나는 대게 뚱뚱해'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중 고등학교 때, 통통해 가지고 남자 애들한테 놀림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니깐, 지금 43키로 밖에 안 나가는데도 자기가 되게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발목까지 오는 롱 스커트를 입어요... 걔를 데리고 매장에 가서 옷을 입히면 다 커

요... 그럼, '아 내가 날씬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 자나요. 그런데 '아 내가 날씬 하구나' 라는 건 느끼는데, 옷을 다 쫙 다 줄여 가지고 옷을 사줘도 그 옷을 안 입고, 다시 롱 스커트를 입어요. 몸매가 바뀌어도 그렇게 되더라구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그날 그날의 기분, 시간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바뀌는 고정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도 의복 선택의 결과로 이어졌다.

모아나: 저희 엄마는... 옷을 같이 사러 가거나 제가 옷을 방에서 갈아입느라고 옷을 다 벗고 있을 때, 맨날 저 보고 너무 뚱뚱하고 살 쪘다고 하세요. 심지어 [제] 오빠도... "너 너무 다리가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 진짜 뚱뚱해서 그만 먹어야 겠다.', '살을 빼야겠다.', 그러면 '옷도 하체를 가리는 것 만 입어야지.' 했다가, 친구들이 저 보고, "너 몸이 하나도 안 뚱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또 그때는 '더 타이트 한 거를 입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체 이미지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말 줏대 없고.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듄듄: 예전에는 남이 내가 내 자신을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날씬하게 보면은, 되게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아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막 '너 오늘 그렇게 하니깐 좀 가슴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어, 나 이거 절대 안 입어.' 막 이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의복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도 의복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모아나는 "예쁜 애들"의 이상적인 신체에 맞는 의복의 사이즈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였다.

모아나: 제가 옷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20대 여학생 평균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쁜 애들은 90정도 엉덩이 둘레가 나오거든요. 그 44, 55를 입는 아이들 중에서. 근데 저는 일단 95 센치에요. 그러니까 44는 꿈도 못 꾸고 55도 꼭 맞고 66을 입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듄듄은 의복 선택에 따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

고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 듄듄: 뭐 오늘따라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허벅지가 엄청 두꺼워 보여요. 그러면. 집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가방으로 가리고 걸어 다닌다 던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 다리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이러는데... 남이 저를 어떻게 평가 하는가에 대해 많이 집착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보다 남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막 약간 옷 입고 나왔는데 좀 구린 것 같으면, 집에 다시 가고 싶다거나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어린시절의 기억에 따른 고정된 평가와 그날 그날의 기분, 시간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 영향 받는 고정되지 않는 평가가 동시에 발견되었으며, 의복이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평가의 원인 및 기준이 되었다.

제 2 절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실제 신체 및 이상적 신체의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가 의복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참여자들은 신체에 대하여, 허벅지, 종아리, 허리, 머리 크기 등의 특정 신체 부위 뿐만 아니라 키, 몸무게, 뚱뚱함, 마름, 납작함 등의 신체 전반에 대한 고려를 표명하였고, 장점, 단점, 혹은 컴플렉스라는 가치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체 평가는 특정한 의복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구체적인 의복 선택의 예를 다음에 오는 4가지 하위 범주를 통해 살펴보았다.

1. 특정한 복종, 실루엣, 길이

특정한 의복의 복종, 실루엣, 길이, 스타일에 대한 선택 혹은 회피가 신체 평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스커트와 바지라는 특정한 의복 복종 뿐만 아니라 플레어, 부츠 컷, A 라인 등의 구체적인 의복 스타일 및 실루엣의 선택을 이끌었다. 유하늘은 자신이 키가 작고 종아리가 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한 의복의 길이를 선택하였다.

> 유하늘: 전 짧은 게 좋아요. 아주 짧던지 아주 길던지 내가 쪼끄마니까, 뭔가 어중간한 걸 입으면 키가 더 작아 보이는 느낌?... 아 참, 전 종아리 중간에 걸쳐지는 옷은, 아무리 옷이 예뻐도 안 사요. 어렸을 때부터 종아리가 두껍다는 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종아리가 두꺼워 보여서 종아리 중간에 걸쳐지는 옷은 안 사요.

듄듄은 자신의 "허벅지가 두껍고 종아리가 얇아서" 얇은 종아리를 드러내지 않고 두꺼운 허벅지 부분이 밀착되는 형의 의복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 듄듄: 전 부츠컷 절대 안 입거든요. 왜냐면 저는 허벅지가 두껍고 종아리가 얇아서. 얇은 부분을 안 드러내 보이면 살쪄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음은 자신의 하체에 대한 평가가 바지를 회피하고 스커트를 선택하게 하며, 스커트 중 개더 스커트라는 특정한 복종을 회피하게 한다는 이라희의 언급이다.

> 이라희: 스커트 고를 때는 일단 개더 스커트를 사지 않아요. 왜냐면 전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개더 스커트가 잘 안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팬츠는 잘 안 사요. 일단 제가 하체가 별로 날씬한 편이 아니라서 팬츠가 별로 잘 어울리지않아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박율 또한 자신의 허리와 하체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자신의 "장점"인 허리와 "단점"인 엉덩이와 허벅지 때문에 특정 실루엣과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 한다고 하였다.

> 박율: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형적 장점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고요, 단점은 극소화 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저는 허리가 대게 가는데, 엉덩이 랑 허벅지가 대게 커요. 그러면은 엉덩이와 허벅지를 최대한 가리고 허리를 최대한 가늘게 보여줄 수 있는 옷을 고르려고 거의 A 형,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를 많이 골라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신의 평가 신체 부위에 따른 의복 선택 및 의복 맞음새 만족도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합적인 신체 부위 평가를 통해 특정 의복 스타일 및 실루엣의 선택과 회피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자신의 얇은 허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듄듄은 이로 인해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실루엣의 의복을 선택하였고, 허리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실루엣은 회피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복 선택에서 허리 라인을 강조해 주는 것은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를 보완해 주는 동시적 역할을 나타내 주었다.

> 듄듄: 저는 옷을 고를 때 첫 번 째 중요한 게 실루엣이 에요. 근데 그 실루엣이 제 몸에 어울리는 실루엣. 예를 들어, 저는 허리가 약간 가는 편이 여서, 허리를 무조건 붙이거든요... 거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가늘어서. 아 근데 그게 약간 체형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 게, 저는 어깨가 키에 비해서 진짜 좁고 가슴이 없고 그러니깐 헐렁한 걸 [루즈 핏 Loose-fitted] 입으면 대게 지나치게 말라보이면서, 약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의복에서 자신의 장점인 가는 허리 부분을]붙이는

거애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겠지만.

Davis(1985)가 자신이 지각 하는 체형은 패션 및 의복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었 듯이, 듄듄의 경우에도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가 의복 실루엣 선택에 영향을 끼치었지만, 의복 맞음새의 선택은 한 가지 이상의 평가 신체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의복 맞음새 선택은 자신의 한 가지 이상의 평가 신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라희를 통해, 의복의 디자인 길이를 '고려하지 않음'도 자신의 평가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임을 알수 있었다. 이라희는 자신이 평가하는 신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스커트 길이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복은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이라희: 예를 들면, 제가 짧은 다리 인데, 제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는 [의복의] 지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어서 길이는 애초에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고, 애초부터 [제가 선택하는 옷은] 그런 길이의 옷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골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커트 길이가 뭐 35 센치이면은 괜찮지만, 허리에 기준으로 하는 거면 더 긴 걸 산다든지.. 하는 거죠.

의복 선택과 관련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신체의 한 부위 및 부분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 전반의 각 부위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영향을 끼치어, 특정한 의복의 복종, 길이, 실루엣 선택 및 회피를 이끌었다.

2. 특정한 원단

의복의 원단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의복 맞음새 선택에서 자신의 가슴 부위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 한다는 황지원은 “스판이 있는” 원단을 선택하여 맞음새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였다.

황지원: 옷을 고를 때, 일단... 어렸을 때부터 좀 가슴이 크다 보니깐, 무슨 옷을 사도 가슴이 커 보이는 거를 좀 회피하게 되고... 스몰 입으면 어깨는 맞는데, 가슴에서 단추가 껴 가지고 막 벌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깐, 옷 원단 하고도 되게 많은 관계가 있는데, 원단 자체가 약간 스판이 있는 옷이면 조금 작아도 그냥 입겠다 그러는데....

자신의 하체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었던 이라희도 원단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었다.

이라희: 일단 제가 하체가 별로 날씬한 편이 아니라서 팬츠가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팬츠에 스판끼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소세지 같아 보인다고요. 팬츠에 스판끼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특히, 긴 바지는 잘 안 사요. 그게 되게 불편해요.

맞음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높은 신장성의 스트레치성 소재의 원단(김선영, 2000)은 오히려 자신의 평가 하체를 부정적으로 강조하여, 바지 선택 회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라희는 "스판끼"에 대한 생각에 더해, "흐늘흐늘한 소재" 라고 표현한 일명 다이마루 원단이 자신을 더욱 뚱뚱하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생각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라희: 흐늘흐늘한 소재도 싫어요. 너무 흐늘흐늘한 걸 입으면, 몸매가 너무 둥글... 약간 저의 살집이 드러나서 사람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딱딱한? 적당히 스트레치 안 되는 그런 게 좋아요.

자신의 허벅지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던 듄듄과 박율은 자신들의 의복 선택에서 고려하는 구체적인 원단의 스판 성분을 이야기하였다.

듄듄: 저는 청바지에 스판이 5% 이상인 것은 사지 않아요. 다리를 안 잡아 주는.... 허벅지 두꺼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청바지가 레깅스처럼 스판이 많자나요? 그러면 편한데 살을 안 잡아 주는 거에요, 다리를. 근데 약간 생지 데님일 수록 다리를 더 예쁘게 잡아줘서, 스판을 약간 3-4%... 왜냐면 너무 생지는 무릎을 못 구부리 자나요. 아빠 다리

못하고 이러니까...

박율: 스트레치 원단 진짜 싫어요... 그러니깐 불편함을 감안해서라도... 스트레치 원단이 편안 하려고 입는 거 자나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치 원단을 당연히 5% 미만 그런 청바지만 입고, 그리고 스트레치 원단을 굳이 쓴다면 운동복에만 입어요. 다른데 입는게 없어요.

의복 원단의 특정 컬러나 프린트 패턴도 자신의 평가 신체와 의복 선택에의 영향이 있었다. 아래는 특정 컬러와 프린트 패턴에 대한 이라희의 의견이다.

이라희: 저는 선호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상체는 밝은 걸 입고 하체는 어두운 색을 입어요. 왜냐면 저는 하체가 두껍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체 중에서 저는 체크 무늬를 선호하는데 체크 무늬를 엄청나게 많이 입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체크 무늬가 부 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트라이프를 싫어해서 스트라이프를 잘 안 입고, 그 이유는 스트라이프가 약간 부 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체는 무늬가 없는 용으로 주로 입고, 웬만하면은 밝은 색깔을 입고. 그리고 저는 한색보다는 따뜻한 색이 잘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웜 톤이 어울리지는 않아서, 그 중간 정도인 약간 브라이트한 덜 톤을 입는 스타일 이에요.

이라희의 의견은 색은 신체 부위를 강조해 줄 수 있다는 DeLong (1987)의 연구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De Klerk and Lubbe(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의복 평가에 있어서의 미적 경험의 일환인 원단의 색과 촉감의 감각 차원 역할과는 다른 관점으로, 소비자의 주관적인 신체 평가로 인한 의복 원단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Ridgway et al. (2017)는 소비자들은 시각적 착시(optical illusion)를 일으키는 의복 프린트 패턴의 공간적 효과와 대조를 통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모래시계형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추구함을 밝혀내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의복 프린트 패턴은 신체 단점을 숨기고 다른 신체 부위를 강조 함으로써, 신체 전반의 비율을 이상적으로 맞추어 여성의 신체 만족도를 높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로 인해 의복 원단의 프린트 패턴을 선택함이 찾아졌다.

스트레치성 원단은 의복 맞음새의 한계를 보완하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가 신체에 대한 보완 역할이 적어 회피될 수도 있었다. 또한 원단의 소재 뿐만 아니라 원단의 색과 프린트 패턴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3. 보정용 의류

보정용 의류는 의복 착용을 통해 체형 보정을 해 주어 정형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이준옥, 2001). 보정용 의류는 운동, 다이어트 등의 직접적인 신체 수정과 의복을 통한 수정 사이에 있는 중간 개념의 의류이다. 섹큐게는 남성복에서 보정용 의류에 대한 예시를 언급해 주었다.

> 섹큐게: 그래서 뭐 외국 남자애들은 어깨 뽕 같은 거 티셔츠에 넣고 다니고 그런 거 있긴 있잖아요. 아니면은 남자 요즘에 속옷 나오는 것도 그런 쪽으로 배 쪽을 줄여주는 완전 타이트하게 코르셋 같은 거... 뚱뚱한 애들을 위한 나시 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몸을 쫙 쪼여줘 가지고, 가슴 이랑 배랑. 이제 남자들은 가슴 배 잖아요. 보통...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의복 맞음새를 선택하기 보다는 보정용 의류를 통해 자신의 평가 신체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보정용 의류 원래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정용 의류를 통해 자신의 평가 신체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 박율: 운동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원천적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래서 보정 속옷을 안 입어요. 차라리 단점을 다 드러내면서 운동으로 그걸 보정 할려구.

가슴 크기가 작음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였던 이지영은 보정용 의류에 대해 "보정 속옷은 일단 불편하니깐..." 입지 않는다 하였고, 이라희는 보정용 의류보다는 속옷이라는 개념에 더욱 집중 함을 보여 주었다.

이라희: 속옷은 저는 레이스 속옷이 좋아요. 왜냐면 예쁘기 때문이에요.

본 연구에서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는 보정용 의류의 선택은 불편함과 직접적인 신체 수정 등의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고 보정용 의류의 특성 상 속옷의 경우가 많은데, 속옷이라는 복종의 특성이 보정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었다.

4. 악세사리류

의복 의상 뿐만 아니라 모자나 신발 등의 악세사리 류도 자신의 평가 신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모아나와 이라희는 자신들의 발에 대한 평가로 인한 구체적인 신발 선택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아나는 "발 볼이 두껍고 발가락도 짧고 직사각형으로 생긴 발" 이여서 자신의 단점인 짧은 발가락이 드러나는 앞이 짧은 힐을 신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라희는 "발 볼이 두껍기 때문에 뾰족한 코를 선호하지 않고 둥근 코를 선호 한다"고 하였다. 모자 등의 악세사리 류는 자신의 머리 크기 및 얼굴 평가에 의해 선택 및 회피 되였으며, 자신의 신체 컴플렉스를 가려주는 역할과 동시에 신체 장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모아나: 저 모자 완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얼굴에서 눈에 콤플렉스가 있는데, 캡 모자를 쓰면 눈은 가리고 얼굴 작은 거는 이제 부각이 되니깐. 그래서 저는 캡 모자, 선글라스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듄듄: 얼굴 크기는 약간 포기 한 것 같아요. 옷으로 어떻게 안되니까.. 저는 모자 절대 안쓰거든요. 머리가 커보여서. 머리 숱도 많은데 머리도 크니깐... 저는 하관이 길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면은 여기[하관]가 강조 되는 거애요.

"목이 짧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 평가 때문에 듄듄은 "긴 머리"의 헤어 스타일을 주로 고수한다고 하였고, "머리 크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라희는 그럼에도 자신의 머리 크기에 대한 평가로 인해 "단발머리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헤어 스타일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때문에 모자, 신발 등의 특정한 악세사리 류를 선택 혹은 회피하였고, 헤어 스타일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체 평가가 관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제 3 절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을 넘어선,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발견 되었다. 이를 다음에 오는 6가지 하위 개념 범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사이즈 맞음새

의복 사이즈 맞음새는 브랜드 사이즈와 표준 사이즈 등의 소비자 타겟 대상의 물리적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징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다 (Ashdown and Locker, 2010).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의복 사이징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긴자이는 의복의 사이즈 맞음새와 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 긴자이: 뭐 바지는 아무래도 쫌 원래 사이즈로 입으려면 32? 이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체로는 살이 안 찌니까 지금도 한 30? 31? 이렇게는 입거든요. 또 브랜드마다 또 틀린데.. 29 입을 때도 있고...

또한 이러한 사이징 시스템 때문에, 의복의 사이즈 맞음새가 특정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박율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의 기대감과 경험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 박율: 매장에서 파는 옷 같은 것들이 55사이즈 부터 그러니까 허리가 25 부터 나와요. 청바지는. 그나마 좀 작게 나오는게 'C 브랜드' 에서 나오는게 가끔 24가 나오고 웬만하면 25부터 나오니까, 하나도 청바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외 브랜드를 구매대행해서 사거나 직구를 하거나 해서 사거나...

한국인 체형에 비해 다리가 길고 마른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지영 또한 특정한 브랜드 선택을 통하여 의복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브랜드를 회피 한다고 하였다.

이지영: [바지가] 있으면은 잘 입는데, 한번 살 때, 좀 막 살 수가 없어요... 한국 아니고 그냥 유럽 이런 데서 사든지, 사이즈 좀 다양하게 나오는 브랜드나... 나 한 테 맞는 브랜드 한번 찾았으면, 그냥 계속 거기서 계속 사 입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찾아야 겠구나 하고...

이에 더해 이지영은 자신의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복을 추천해 줄 때, 브랜드 별로 다른 사이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를 기준으로 브랜드 선택을 권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지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리겠냐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브랜드 별로 가서 입어 보고 내 체형에 맞는 옷 브랜드에서 계속 구매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추천해 줘요.

많은 여성들이 의복 사이즈 맞음새와 자신의 신체를 동일시하며 (Grogan et al., 2013a; Sontag and Schlater, 1982; Sontag and Lee, 2004) 자신 보다 더 큰 사이즈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Grogan, 2017). 박율의 경우에 의복 사이즈 맞음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박율: 딱 옷을 사러 갔는데, 허리가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애요. 그래서 '아 내가 허리는 남들보다 가늘구나'...

박율은 이에 더해, 의류 전공자로써 의복 사이징 시스템이 의복 맞음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의복 맞음새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박율: 예전에는 그냥 옷을 살 때, '아 이 옷은 왜 나한테 안 맞지?'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체형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전공을 하고 나서는 '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옷의 문제 구나' 라는 거를 대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이 옷은 그냥 내가 가서 수선을 하면 되는 구나. 이 옷이 나를 타겟으로 만든 옷이 아니니까'. 근데 전공을 안 했으면, 계속 계속 '왜 내 몸은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쟤 네들이 랑 다르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쟤 네는 왜 다 비슷해 보이고,

나는 달라 보이고...

황지원은 이러한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해 주었다.

> 황지원: 지금의 내 몸에 안 맞춘다는 거야. 여자들은 대부분. 심리적인 건데 이거는. 내가 가장 예뻤던 시절이 만약 [사이즈] 55였어. 근데 지금 66이야. 그럼 나는 66을 사야 되자나. 근데 여자들은 55를 산다는 거야. 대부분. 좀 작아도 입어. 그리고 살을 빨려고 해...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내가 인정하고 늘리려고 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해 바도, 분명히 작아. '66입어요 그냥.' 그럼 66입어. 그럼 이게 맞아 분명히 그런데도 싫어해. 그 좀 편안하게 맞는 거를 싫어해... 굳이 55를 입어. 그게 날씬해 보이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라니깐. 사이즈 스펙 좀 작아도. 그냥 살 뺀다고 하고 많이 입어. '빨 꺼에요' 그래. 근데 다음에 오면 더 쪄 있어.

One-size-fits-all 사이징 시스템의 등장은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와의 적은 관계를 가진다(Ashdown and Locker,2010). 본 연구에서도 일명 프리사이즈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강한 관계를 갖지 않아 의복 맞음새의 문제의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 긴자이: 프리 사이즈? 이런게... 그래서 그런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런 걸 생각하기 싫어서 프리 사이즈로 하나로 다 만들면 고객들이 알아서 입어보고 사게 끔 유도하는 게 아닐까요?

> 황지원: 그냥 프리 사이즈. 어떤 쇼핑몰은 그래서 사이즈 없는 쇼핑몰도 있어. 모든 옷이 그냥 다 프리 사이즈야. 그리고 바지도 벤딩. 벤딩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입는... 스트레치 원단이나 벤딩으로 그냥 사이즈 문제 해결하고.

그렇지만 황지원은 프리 사이즈를 지양한 사이징 시스템의 도입이 의류 사업의 성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일례를 이야기 해 주어, 프리사이즈를 통한 의복 맞음새 해결이 하나의 방안일 뿐 이라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황지원: 기존의 니트 티나 티가 다 원 사이즈 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업체가 일명 다이마루라고 하는 면 티 사이즈를 스몰, 미디엄, 라지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 동대문 패스트 시장이고 싼데. 근데 그 집이 대박이 난 거야. 근데 그리고 티만 하는 거야. 근데 다 사이즈가 들어 갔어. 정말 돈 뭐 7천원짜리 만 원짜리 티에 라벨링을 다 해서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정확한 라벨 사이즈 스펙을 넣어서... 그니깐 사이즈를 스몰 미디엄 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 대박이 난 거야.

소비자들의 의류 제품 평가는 디자인, 소재, 구성, 마감의 물리적 속성에 의한 '어떠한 의복 아이템인가' 와 '기능적인가 혹은 심미적인가'에 따른 행동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Gersak, 2002; De Klerk and Lubbe, 2008;). 본 연구에서도 기능성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는 일상적 패션 의복에 대한 맞음새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의복 사이징 시스템에서 생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복 맞음새의 문제는,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황지원: 오히려 요가 복 이라던가 스포츠, 기능적인 면, 스포츠 웨어 쪽으로는 다른 거지. 그 안에 어떤 IT 기술이 녹아 있다거나 테크놀로지 이런 식의... 그럴 때는 이 섬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아 이게 어떤 소재이고, 이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녹아 있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자나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입었을 때 내 사이즈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서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차라리 사이즈 쪽으로는. 근데 일상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지]... 왜냐면 너무 지금 인제 자유분방하게 옷을 입으니깐.

섹큐게: 디자이너가 뭐 이거는 가슴둘레 100인 사람이 이 사이즈를 입어라 이런 게 없자나요. 그런 제시해 주는 게 없자나요. 그건 그냥 '이 의복은 가슴 사이즈 몇에 허리 사이즈 허리 둘레 몇 인, 엉덩이 둘레 몇 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게 디자인 됐다.' 뭐 이런거.. 의복 사이즈 그건 의미가 없자나요. 그러고 제시를 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의미가 있을려면. 군복? 그래서 군복 사이즈가 엄청 많챠나요. 키, 사이즈, 뭐... 몸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줘 가지고 쫙 있어요.

의복 사이징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기는 사이즈 맞음새는 특정 브랜드 선택 및 회피를 야기하였고, 프리사이즈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사이즈 맞음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생성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와 일상적 패션 의복을 나누어 사이즈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다.

2. 시대의 변화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좋은 의복 맞음새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황지원은 맞음새를 일부러 조절하여 입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소비자 큐레이팅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고, 긴자이는 의복의 맞음새를 조절하여 입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서 소비자의 신체와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은 강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 황지원: 옛날... 20년 전에는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불편하면 안 입었어. 그 사이즈가 없으면 안 샀고, 아니면은 주문을 해서 그 사이즈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입는 다거나... 굉장히 남들한테 보였을 때, 딱딱 떨어지는 그 내 몸에 안 맞거나 작은 거를 입으면 되게 가난한,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사이즈 스펙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작아도 '이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고 밑에는 박스로 입을 래'. 어떤 그 큐레이팅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이거는 한 치수 일부러 작게 입는게 이뻐요. 작게 입고 대신에 밑에 풀오버 와이드 팬츠를 입을 꺼니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디자인적인 욕구에 대한 사이즈를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조절한다는 거지.

> 긴자이: 좀 루즈하게 입고 싶은 계절엔 일부러 좀 더 많이 크게 사고, 좀 핏 하게 입고 싶으면 사이즈대로 사고... 그래서 요즘은 뭐 신발만 해도, 일부러 한 두 세 사이즈 크게 사서 신고 바지도 한 두 사이즈 크게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만해도 이제 그냥 이 사람[디자이너]은 이렇게 입으라고 만든 건데, 나는 이렇게 입고 싶으니 깐 다른 사이즈를 사야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황지원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맞춤 정장에 대한 개념이 "이지 캐주얼 정장"으로 바뀌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맞춤 정장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맞춤 정장은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정확한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지만, 캐주얼한 정장을 입게 되면서 사이즈 스펙을 통한 의복 맞음새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황지원: 90년대... IMF 전 후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핸드백을 들어야 되는 의복의 소비문화가 있었어. 내가 제대로 딱 이렇게 잘 갖춰 입어서, 회사에서 저 사람 옷도 잘 입고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때는 맞음새가 굉장히 중요해서, 44부터 맞춤 정장도 많이 팔리고, 쓰리 피스가 엄청 많이 나갔었어. 그니깐 조끼까지 딱 입는 쓰리 피스... 그때가 정말 정장도 많이 나가고 사이즈 별로 다 가지고 가고 했는데, 산업 구조가 일단은 개편이 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일단 일자리나 청년들이 비고용직으로 일자리를 많이 갖다 보니깐, 캐주얼 브랜드. 운동화에 다가 배낭 매고 다니는 샐러리 맨들. 이런 풍토가 나타나면서, 실용주의적인 패션?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 이것 보다는, 실용주의적인 패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정장이 남성복도 많이 안 나가고, 여성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런, 또 주 5일제이고...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그런 식의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도 인제 캐주얼 하게 점점 바뀌다 보니깐, 옷에 대한 것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깐 캐주얼 라인이 많아지면 사이즈 스펙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어. 정장 라인에서는 사이즈 스펙이 중요한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캐주얼 라인으로 많이 옷을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캐주얼이 아니라 약간 정장스러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들. 이지 캐주얼.

긴자이 또한 예전에는 좋은 맞음새의 의복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 긴자이: 근데 옛날을 생각해보면 이제 딱 맞은 옷은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지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 자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옷도 크게 더 입고 아마 나중에 더 크니까 큰 옷을 사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데 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집은, 옷도 사이즈에 맞게 입고, 뭐 정장 같은 것도 그래서 맞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그래

서 크게 입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없어 보인다고.

좋은 의복 맞음새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낮은 관계성을 이끌었다.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를 큐레이팅해서 입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지캐주얼이 맞춤 정장을 대체 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이 변화하였다.

3. 의복 관리 행동과 신체 관리 행동

외모 관리 행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있으며(Rudd and Lennon, 2000; 박은정, 정명선, 2012),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다이어트, 운동 등의 신체 관리 행동 및 의복 관리 행동과 강한 연관이 있다(임은진 외, 2017; 김인화, 2010; 이영주, 임숙자, 2001).

서화숙과 송정아(2004)에 따르면 신체 불만족은 외모 관리 행동이나 의복 만족에 큰 영향을 끼치며,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위는 체중조절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의복을 통해서 이 부위를 감추어 체형을 보완하려는 등 여러가지 외모 관리 행동을 한다 (노이경, 송화경, 2017). 이승희 외(2001)은 한국과 미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문화에 관계 없이 동일한 편이지만 두 집단 모두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한국 여성은 화장이나 피부관리에, 미국 여성은 운동이나 다이어트등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관리 행동 중 의복 관리 행동과 신체 관리 행동의 좀 더 구체적이고 다른 관계들이 발견되었다. 박율은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허벅지를 오히려 드러내는 의복을 선택하여, 원하는 신체를 구현하기 위한 신체 관리 행동을 하게 끔 유도하였다. 자신의 불만족하는 신체 부위를 의복을 통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노출함으로써 이상적인 신체를 만들기 위한 자극제로써의 의복의 역할이 나타났다.

박율: 옛날에는 청바지 밖에 안 입었어요. 왜냐면 치마를 입으니깐 허벅

지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청바지로 꽁꽁꽁 싸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치마를 입으니깐 내 다리가 창피해서 자꾸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를 입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다리 그냥 보여주면서 다리 살을 많이 빨라고... 근데 진짜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모아나는 자신의 평가 신체와 이상적 신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의복을 선택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하였다.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장기적인 신체 관리 행동 보다는 단기적 혹은 즉각적인 의복의 신체 보완 역할을 선택하였다.

모아나: 운동이나 다이어트도 항상 생각을 하죠. 사실 옷으로 커버를... '거적떼기를 입어도 예쁜 몸매 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치만... 시도를 해 보았으나 번번히 실패 했고. 그리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건데, 난 지금 당장 예뻤으면 좋겠고... 당장 가릴 필요가 있으니까 항상 옷을 고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옷을 고민 안 해도 되게 신체를 바꾸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죠.

신체 관리 행동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복을 위해 형성되기도 하였다.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신체 관리 행동이 아니라 원하는 의복을 입기 위해 신체 관리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가격대가 높은 "스키니 핏"의 남성복 바지를 선호 한다는 긴자이를 통해, "스키니 핏"을 위해 자신의 신체가 어떠한 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이상적 평가가 있고, 이를 위해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는 신체 관리 행동이 보여졌다.

긴자이: 저는 이제 밑, 아래 쪽으로 살이 잘 안 찐다고 했자나요. 근데 복싱을 했었는데, 옷은 좀 가격대가 있는 걸 사니깐, 만약에 옷이 안 맞으면 버릴 수는 없자나요. 근데 복싱을 하는데 하체 운동을 시키더라구요. 근데 하체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으니까 허벅지가 더 굵어 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일부러 하체 운동은 안하고 그랬어요.

Hwang(1996)은 의복 혜택을 추구하는 요소 중 패션 이미지와 신체 단점 보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긴자이를 통해 "스키니 핏"이라는 패션 이미지 추구에 따라 신체 단점 평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박율은 의복을 통한 신체 단점 보완과 운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관리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존하는 개념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박율은 특정 운동 회피를 통해, 신체 보완 및 불만족 극복을 하였다.

> 박율: 둘다 하는 것 같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막 근육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면 커지자 나요, 근육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하고, 스트레칭 같은 그런 운동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옷 같은 부분도 그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신체에 가까이 되도록 그렇게 강조될 부분은 강조되고 없어져야 할 부분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신체 관리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이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의복을 통한 신체 보완의 역할이 있었다. 또한 신체 관리 행동과 의복 관리 행동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개념이었다. 의복을 통해서 신체 관리 행동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의복을 위해서 특정한 신체 관리 행동이 회피 되기도 하였다. 황진숙과 김윤희(2006)는 외모 관리 행동을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 과격한 체중 조절, 일상적 외모 관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찾아진 것은 한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패션 이미지를 위해 운동 선택을 통한 외모 관리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체를 위해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도 가능하였다.

4. 패션 및 구매 행동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맞음새 선택에 있어서, 패션의 관여와 의복의 가격, 구매 빈도 및 장소의 관계가 드러났다.

패션 오피니언 리더 또는 패션 이노베이터의 구분 없이 의복과 패션에 대한 관심을 패션 의식(fashion consciousness)이라 한다(Nam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이지영은 패션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신

체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 있어 강한 관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 이지영: 저희 타겟 층이 젊은 사람들, 스타일리스트나 연예인들 그 정도가 80-90%정도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반인들도 다 어느 정도 패션에 관심이 좀 생각보다 큰 사람들이 여서... 일반인이 여도 뭐 모델을 한다 던지, 스타일리스트를 한다던 지... 그냥 자기 몸 관리가 되어 있는... 자기 신체가 좀 레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작은 사이즈를 사가죠. 보통. 여자 옷은 스몰.

패션 의식과는 조금 다른 패션의 유행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의복 맞음새 선택의 관계는, 다음에 오는 모아나, 듄듄 그리고 박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패션의 유행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영향에 의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는 구매 빈도와 연관이 되었다.

> 모아나: 그 한창 완전 꼭 맞는 핫팬츠 같은 게 유행 했던 적이 있자나요. 근데 그런 게 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유행을 하긴 하지만 제 신체를, 컴플렉스를 드러낸다면 안 사요. 그리고 유행을 안 하는 아이템임에도 제가 보기에 예뻐 보이면, 제 신체를 가릴 수 있으면 사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의가 신경이 쓰이니까, 하의를 고를 때,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물건을 구매하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자주 구매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체에 어울리는 특정 의복이 존재 한다고 하였던 박율은 자신이 추구하는 허리가 달라붙지 않는 의복이 아닌 "'루즈-핏' 패션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거의 옷을... 그럴 땐 안 사요" 라고 하였다. 허리가 강조되게 몸에 달라 붙는 의상을 선호 한다는 듄듄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의복과 패션의 유행이 일치 하지 않을 때 의복 구매를 줄인다고 하였다.

> 듄듄: [최근에] 허리가 없고 긴 기장이 유행 하자 나요. 아니면 어깨 오버핏... 근데 제가 옷 고를 때 기준이 몸에 붙인 실루엣이 자나요. 그러니깐 너무 어려운 게 어깨가 제자리에 안 붙어 있고 허리가 펑퍼짐하고

길이가 기니까, 옷을 사 입을 데가 없는 거에요.

황지원은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가 미니멀리즘 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일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려가 패션의 유행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주었다.

황지원: 미니멀 라인에서 풀오버 사이즈, 굉장히 그 일부러 풀오버 박시 스타일로 그 입는 그 라인이 전체 세계 트렌드 시장에서 명품 콜렉션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뭔가 엉덩이도 가리고 고급스럽고 럭셔리한데, 뭔가 있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심플하고 이러니까, 체형적인 것도 다 가릴 수 있고, 그러니깐 그 때부터 사이즈 개념이 없어진 거야. 그 브랜드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깐 사이즈 스펙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사이즈의 의미가 크게 없는 그런 라인의 옷들...

위의 의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라희는 패션의 유행을 따르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다른 조건이 붙는다고 하였다. 이라희의 의견에서는 의복의 가격과 구매 빈도가 패션의 유행과 의복 맞음새 선택이라는 테마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라희: 그냥 유행하는 거 사요...좀 어울리지 않아도. 근데 보통은 제 생각에 제 몸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자나요. 그러면 그 스타일에 기본으로 하고 유행하는 거는 대개 쪼금 사는 것 같아요. 싼 걸 사거나 되게 쪼끔 사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잘 어울리지 않아도 대충 입고, 진짜 제가 어울리는 스타일은 많이 가지고 있죠. 좋은 걸로 많이. 좀 비싸더라도...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거나 유행하고 있다면 살 의향이 있는데, 그 길이가 저의 베스트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 때는 비싼 거를 잘 안 사죠.

의복의 구매 가격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관계가 있었다. 모아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단점을 커버" 할 수 있는 의복은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한다고 하였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 의복은 많이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싼 가격의 옷을 산다고 하였다.

모아나: 나의 신체 이미지의 단점을 커버하거나 더 예쁘게 보일 수 있

는 옷은 가격이 더 높을 수록 더 그 효과가 큰 걸 고르는 것 같아요. 좀 싼 옷은 그 단점을 커버하지 못해도 그냥 뭐 싸니까 한 두 번 입고 다른 거랑 적당히 조합해서 입지 하고 그냥 사는데, 가격이 비싸질 수록 그거를... 나의 내가 원하는 효과를 내주지 못 하면은 절대 사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의복의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복 구매 시 의복을 입어보는 것을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다(Alexander et al., 2005; Hwang, 1996). 모아나는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의복의 맞음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혀 주었다.

모아나: 그래서 일단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아요. 의복을 구매 했을 때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맞아도 이제 핏이 안 예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신체가 일단 첫번째로 의복을 구매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의복을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긴자이는 의복을 실제로 입어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의복을 입어 볼 수 없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긴자이: 저는 옷 살 때도 입어 보지 않으면 아예 안 사요. 뭔가 다 입었을 때 다 느낌이 틀리니깐... 저는 인터넷 쇼핑을 안 해요...그래서 저는 아예 뭐라해야 되지... 오히려 싼 가격을 찾을꺼면 빈티지를 사거나 하고. 아예 입어보지 않은 옷을 사지를 안아요.

김윤정과 이유리(2017)의 연구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 채널은 가격, 편의성 등의 실용적 가치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오프라인 채널은 사이즈 및 소재 등을 직접 확인하는 채널로 활용되었다. 장재임(2004)의 연구에서도 의복 사이즈 맞음새는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는 오프라인 구매 시 가장 중요시되는 구매속성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복 사이즈 맞음새가 의복의 구매 가격, 빈도 및 장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신체 평가에 따른 패션 유행의 회피 및 관여

가 드러났으나, 패션의 유행 자체가 신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는 관계성이 적었다. 또한 구매 빈도와 구매 가격, 구매 장소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5. 기타: 추구하는 형용사, T.P.O.

의복 맞음새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고려돼야 할 기타 사항들이 나타났다.

> 섹큐게: 계절에 따라서 이제 또... 여름이 되면은 노출이 되니까 이제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게 좀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니면 옷도 얇아지고 하니까 이런 배나 가슴이나 엉덩이나 이런데도 신경이 쓰이는데, 겨울에는 사실 옷으로 덮어버리면 되니까.. 겨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섹시미, 큐트, 발랄, 걸리쉬 등과 같은 추구하는 의복의 형용사 이미지 및 시간. 장소. 상황(Time. Place. Occasion) 따라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달라졌다.

> 이라희: T.P.O. 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 결혼식에 갈 때는 발랄이건 큐트 이건 상관 없고, 저의 이미지도 관계 없이 그냥 안 튀는 거를 입는 것 같은데, 그냥 살아 갈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걸리쉬 정도 인 것 같아요. 너무 페미닌 한 거는 잘 안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약간 그 정도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 모아나: 다 달라요. 그렇게 특별한 기준이 아니여도. 예를 들어 내가. 그냥 학교 다닐 때 입는 옷이랑, 친구랑 놀러 갈 때 입는 옷이랑 다 다르게 구매를 하죠. 학교 갈 때는 좀 너무 야하면 안되니까, 내가 딱 맞는 옷을 사고 싶어도 좀 조신해 보이게 여유량이 있는 거를 사기도 하고. 친구랑 놀러 갈 때는 완전 타이트한 옷으로 입기도 하고... 저는 제가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크고 저의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그거를 다 부각 시키고 좀 난하게 입고 가고 싶지만, 학회가고 이럴 때는 다 가리고 가고 싶죠. 그래서 추구하는 바디 이미지가 T.P.O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 이지영: 그때 그때 기분에 맞춰서, 파티에 따라서... 신체 사이즈 보다

는... 오히려 저는 어디를 가고, 오늘 뭘 할 건지, 그리고 날씨 그 정도로 생각해서 옷을 입는 편이고... 입는 편이에요. 신경 쓰는 편이에요.

반면에 박율은 자신의 의복 선택은 T.P.O에 상관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자신의 신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한 의복 형이 있다고 하는 박율은 T.P.O. 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박율: 거의 비슷해요... 항상 똑같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복을 입고 갔는데 결혼식 가냐고 많이 물어 바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계절, T.P.O.,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형용사 적 패션 이미지 추구를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다.

6.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의복 및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섹큐게는 의복 맞음새의 문제점은 대량 생산을 추구하고 있는 현 의류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섹큐게: 근데 이게 사실 옛날 처럼 맞춤복이 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량 생산을 하면서 사이징을 해야 되고... 그냥 대량 생산의 문제점의 하나 이런 거 아니에요?

모아나는 의복을 선택하는 입장이 아닌 의복을 제안해 주는 입장은 좀 더 많은 개인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아나: 근데 사실, 그 사이즈를 제안해 주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쟈나요. 근데 제가 제 옷을 고를 때는 선택하는 사람이지만, 연구를 할 때는 제안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그게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게 제안을 해 주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지만,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실제] 신체 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데, [신체] 이미지까지 고려를

하면은... 좀 약간 일단 생각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기에도 프로세스 같은 거에 너무 큰 과정이 필요하니까, 제안하는 거는 아예 딱 한가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랑, 특정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해주는 거랑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체 사이즈를 반영하는 대량맞춤이라는 게 조금의 개인차가 있긴 해도 어느 정도는 정비례를 그린다"는 의견의 모아나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개개인별로 정량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규칙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각 개인을 바디 스캔 하듯이, 각 개인을 설문 한다면 "결국은... 그런 식이라면 가능은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양희순(2007)은 의류 브랜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실행 수준 중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은 '고객화 제품의 창조 단계'에서 소비자의 신체 치수에 맞게 의복을 생산하거나 '판매시점의 고객화 단계'에서 '단순한 바지 길이나 소매 길이를 수선해 주는 것 이외에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완성시켜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영은 이러한 브랜드의 고객화 전략에 기대기도 하지만, 소비자 개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이지영: 뭐... 방법을 찾으면 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뭐 U 브랜드 같은 데는, 수선 다 해 주자 나요. 그런 것도 있고, 옷 브랜드 사이트 같은데 가면은 자기 신체 치수 이렇게 [입력] 하면은 그거에 맞는 사이즈 있는 옷들을 보여 주기도 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 나는 원래 44가 맞지만, 나는 55를 입고 싶으면 44를 고르는 게 아니라 55사이즈를 고른다 던가..

이와는 조금 다른 의견으로, 긴자이는 의복 디자인 요소의 중요성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맞음새 보다 우선시 하였다. 수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의복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긴자이: 이제 뭐 쇼를 하거나. 이제 뭐 옷을 만들거나 할 때, 이제 모델이 입고 있으면 나오는 핏이나 디테일 위치 같은 게 디자이너가 그렇게 프레젠트 [presentation] 하고 싶어서 만든 거자나요. 그 사람의 의도

인데... 막상 입는 사람은 다 키가 작거나 크거나... 뭐 다리만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틀린 거니깐. 어. 그래서 막 오히려 더 수선도 하고. 그거는 사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 몸에 맞게...

각 개인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예쁜 신체"에 대한 의복 맞음새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듄듄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 신체가 예쁘다고 말해주는 긍정적 바디 이미지(Wood- Barcalow et al., 2010; Tylka and Wood-Barcalow, 2015; Webb et al., 2015)의 개념 보다는,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상, 예쁜 이상적인 몸을 기준으로 의복 구성 및 제조하여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갖게 해 주고 또한 원하는 이상미에 도달하게 해 주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 평가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였다.

듄듄: 사실 의류라는 것은 복합 학문이고 그런 산업이 엄청 크게 껴 있는 학문이 자나요. 예를 들어 철학 물리학 같은 순수학문에 비해서... 그러니깐, 옷 하는 사람의 특성상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 하세요' 이게 잘 안된 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는게 포지티브한 바디 이미지' 이렇게 안가고, 얘한테 이쁜 옷 입히고 날씬해 보이게 해서 결국 사회적인 이상미를 쫓아가서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니깐...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 가'이지, 이 사람들한테 '예쁜 걸 입혀서 예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렇게 가지는 않자 나요. 그게 학문의 특성 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막 '예쁘게 만들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날씬해 지지 않아도 돼'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올바른 방향인데... 팔아야 되 자나요. 옷은...

이정임(2001)은 평균체형, 바른체형, 이상적 체형을 분석하여 의복 제작을 위한 기준으로 표준체형을 정의하고 3차원 모델로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듄듄의 의견에 따르면 의복 구성 및 제작에서 이상 체형을 기준으로 둘 필요도 있다고 시사되는 바이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제한 점을 떠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듄듄과 모아나 각각은 "의뢰자가 원하는 신체 이미지를 반영해 주는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네' 라고 간단히 대답하면 끝나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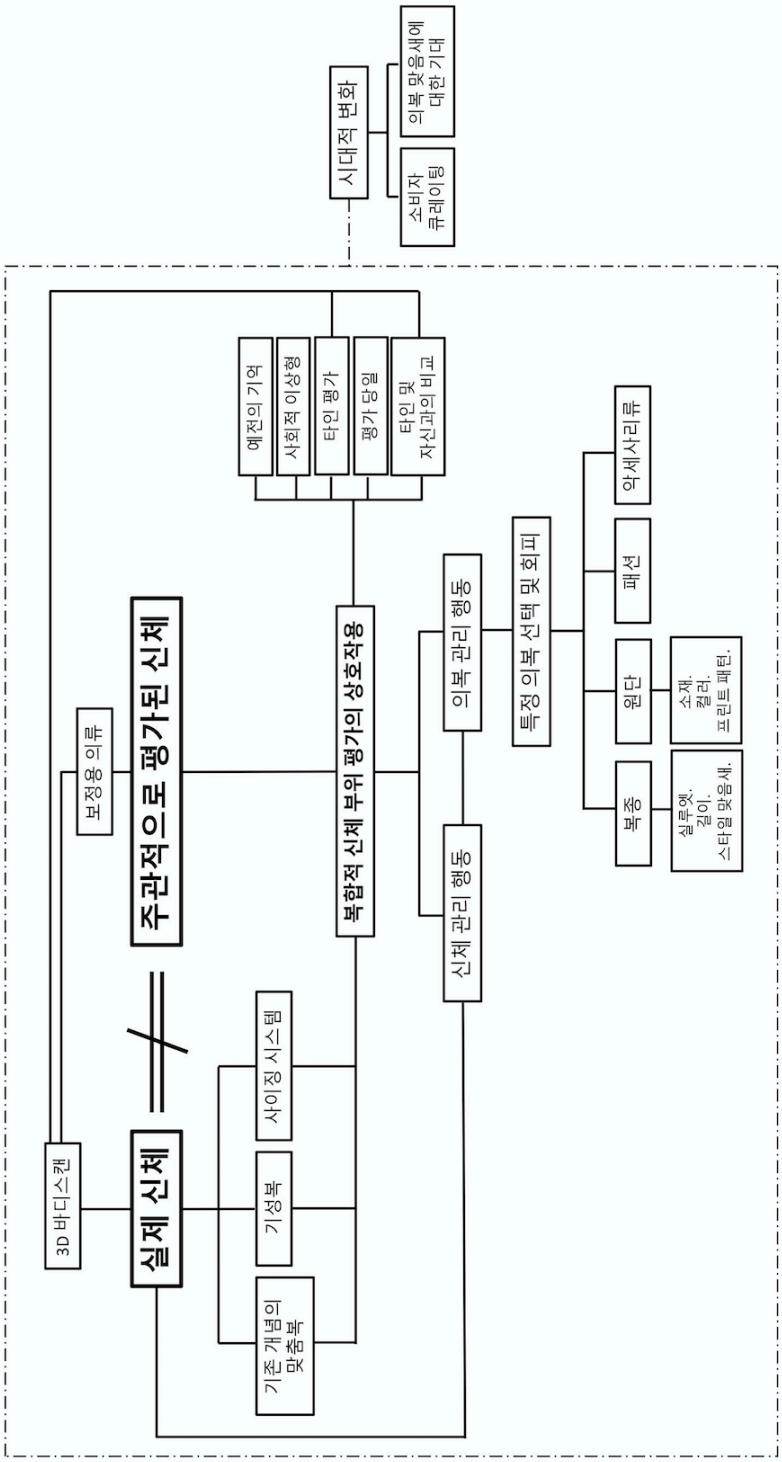
이라 표현하였다. 박율은 물리적 실제 신체 사이즈 기반이 아닌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기반의 의복 맞음새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박율: 예전에 어떤 교수님의 질문 중에도 하나였는데, 허리둘레를 그대로 넣고, 엉덩이 둘레를 그대로 넣어서 스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스커트가 '어, 나한테 딱 맞으니 깐, 너무너무 훌륭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에요... 만족도가 아마 뚝뚝 [떨어질 거에요]...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 누구든 있으니깐. 그리고 그 가리고 싶은 부분에는 당연히 그 시대에 원하는 이상적인 미가 있고, '어, 내 몸은 이 요즘의 이상적인 미에 비해 뭐가 너무 커.', 예를 들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옷은 내 배를 너무 드러나게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 시켜서, [의복] 패턴에 사실 넣는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패턴을 만들 때...

여성들은 의복을 입은 자신의 신체를 의복을 입지 않은 신체 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의복은 각 개인의 신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Markee et al., 1990). 본 연구자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한 의복 맞음새가 긍정적인 바디이미지를 갖게 하여 신체 만족도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은 의복의 수선 및 예전의 일대일 맞춤복 제작 방식으로의 회귀 등을 통해 소비자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는 대량 맞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다.



<그림4>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도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 3D 바디 스캐닝을 통해 얻어진 연구 참여자들의 물리적 '실제 신체'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차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신체 부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단일 신체 부위에 대한 평가를 넘어 각 신체 부위들 간의 상대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3D 바디 스캐닝은 타인의 시점 및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고, 보정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착장하고 측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복 맞음새 추구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신체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타인 및 유명 연예인과의 비교, 미디어의 영향들이 나타났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상적 신체에 대한 서양 문화의 영향과 같은 인종 및 체형이라는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더 각박한 이상적인 미가 존재한다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으며, 의복은 이상적 신체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 및 기준이 되고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결과로써 의복 선택이 이루어짐이 밝혀졌다.

신체 전반의 각 부위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가 영향을 끼치어 생겨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특정한 의복의 복종, 길이, 실루엣, 악세사리류의 선택 및 회피를 이끌었고, 원단의 소재, 색, 프린트 패턴의 선택 및 회피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의해 발생하였다. 의복 착용을 통한 체형 보정의 기능을 가지는 보정용 의류는 불편함과 직접적인 신체

수정 등의 이유와 속옷이라는 복종 특성이 보정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선택되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따른 특정한 의복 선택을 넘어선, 의복의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가 발견 되었다. 의복 사이징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생기는 사이즈 맞음새는 특정 브랜드 선택 및 회피를 야기하였고, 프리사이즈는 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복 사이즈 맞음새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사이즈 맞음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생성되는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성 의복 및 특수 의복일 경우와 일상적 패션 의복을 나누어 사이즈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복의 맞음새를 직접 큐레이팅해서 입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지 캐주얼이 맞춤 정장을 대체 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좋은 의복 맞음새의 기준이 변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낮은 관계성을 이끌었다.

신체 관리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신체 수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완화 하였으나,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의복을 통한 신체 불만족 완화의 역할이 있었다. 패션 이미지를 위해 운동 선택 및 회피를 통한 외모 관리와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신체를 위해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도 가능하여, 한 개인의 외모 관리 행동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체 관리 행동과 의복 관리 행동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개념이었다. 자신의 신체 평가에 따른 패션 유행의 회피 및 관여가 드러났으나, 패션의 유행 자체가 신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는 의복 맞음새와 신체는 관계성이 적었다. 구매 빈도와 구매 가격, 구매 장소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와 큰 연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고, 계절, T.P.O. 및 의복을 통해 추구하는 형용사적 패션 이미지 또한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다.

의복 및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수성

으로 인해 의복 맞음새 연구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의복 맞음새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은 의복의 수선 및 예전의 일대일 맞춤복 제작 방식으로의 회귀 등을 통해 소비자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반영의 필요성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소비자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반영하는 대량 맞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평가를 가지게 도와주는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평가하고, 특정한 의복 선택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 장점을 부각시키고 불만족스러운 신체 단점을 가린다 (Maphis et al., 2013; Frith and Gleeson, 2008; Labat and DeLong, 1990; Davis, 1985).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 즉,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그들의 '실제 신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치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단일 신체 부위 및 부분에 대한 평가 보다는 '허리에 비해 허벅지가 굵다', '키에 비해 어깨가 좁다' 등 각각의 신체 부위 평가와 신체 부위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좀 더 복합적인 신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물리적 '실제 신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신체 항목들과의 일대일 비교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는 특정한 의복 및 의복 맞음새의 선택 뿐만 아니라 회피도 함께 이끌었다. 또한 의복 및 의복 맞음새 선택은 '허리를 강조하고 좁은 어깨를 보완하는', '허리를 강조하고 허벅지를 가리는' 등의 한 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를 보완해 주는 동시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의복 맞음새를 구성 및 제작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확인할 때, 한가지 신체 부위 보다는 복합적인 평가 신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의복 및 의복 맞음새를 선택하려 하는지 혹은 회피하려 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의복의 맞음새는 패션성을 가지는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가 주를 이루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기능성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와 이를 제외한 의복에 대한 맞음새 기대(Gersak, 2002; De Klerk and Lubbe, 2008)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패션성을 가지는 의복의 경우에는 '실제 신체' 보다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가 의복 맞음새와 더 깊은 관련이 있었고, 다층적인 개념의 의복 맞음새는 자신의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의 차이를 수정 및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의복 맞음새와 신체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위한 의복 맞음새인가?'에 대한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를 의복 구성 및 제작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복의 역할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와 다차원적인 개념의 신체 라는 복합적인 개념들 때문에 질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들은 앞으로의 좀 더 다양한 다수의 인구 표본을 사용하는 후속 연구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의복과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상 '실제 신체'와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일치도가 있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 편향이 생겨났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 실행 과정 기간의 제약으로 연구 참여자의 포화를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고, 연구 참여자들의 패션 혁신성향(Goldsmith et al., 1999)에 따라 의복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 고려하지 않고 연구 수행을 시작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다층적 개념의 의복 맞음새를 위한 다차원적 개념의 신체의 심도 있는 관계를 유동적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제시하여, 앞으로의 소비자 중심의 의복 맞음새 연구에 일조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윤정 외(2015)는 발전 된 정보통신기술 ICT 하에 패션산업에서 고객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고객의 디자인 과정 참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고객의 디자인 참여는 실제로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고객의 의복 맞음새 설정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신체'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의복 구성 및 제작에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더 좋은 맞음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태진. (2016). *패션 공학을 입다.* 서울: 나녹.

김민경. (2009). *개인의 선호 여유량을 반영한 팬츠 맞음새 예측 알고리즘 개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선영, & 남윤자. (2012). 슬랙스 맞음새 평가 도구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3), 454-464.

김선영, & 남윤자. (2016). 슬랙스 동작 적합성 평가의 정량적 평가 기준 설정. *한국의류산업학회지 pISSN, 18*(1).

김선영. (2000). *스트레치소재의 길과 바지원형 개발과 인체 측정복으로의 활용*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성민. (2017). 섬유패션산업. In 강태진 외 (지음)., *서울대 교수20인이 제시하는 현실비전: 코리아 아젠다.* 서울: 나녹.

김윤정, & 이유리. (2017). 옴니채널 리테일링에서 패션 제품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 특성 탐구. *한국의류학회지, 41*(1), 170-183.

김윤정, 나종연, & 이유리. (2015). ICT 발전과 패션산업에서의 고객 참여-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공동창출을 활용한 사례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7*(6), 907-918.

김인화. (2010).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9), 1442-1453.

김인화. (2015). *체표면전개도 유형별 남성복 정장재킷의 패턴 생성 알고리즘 개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재숙, & 이미숙. (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957-968.

남윤자. (2015). 옷. In국제미래학회(지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pp. 296-308). 경기도: 교보문고.

노이경, & 송화경. (2017). 20 대 여성의 실제체형, 인지체형, 신체상 지각불일치, 신체만족도가의복 맞음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pISSN, 19*(6).

박은정, & 정명선. (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6*(5), 549-561.

박재경, & 남윤자. (1999).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박창규.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서울: 클라우드나인.

서민정, & 마카베 하루코. (2004).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관한 연

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3*(2), 81-92.
서화숙, & 송정아. (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29-335.
석혜정. (2010). 연령과 비만에 따른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음새 정도의 선호조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4), 75-88.
양희순, & 이유리. (2007). 의류 브랜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실행 수준과 소비자의 기대 수준. *한국의류학회지, 31*(5), 753-764.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2nd ed.). 서울: 박영사.
이규은, 김은주, & 염영희. (2005). 여대생의 신체존중감, 신체상 불일치 및 우울. *기본간호학회지*, *12*(2), 206-214.
이승희, Rudd. N.A., & 김재숙. (2001). 바디이미지 연구 (1); 한, 미 여성의 이상적 미 (美), 바디이미지와 외모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969-980.
이영주, & 임숙자. (2001). 체중조절행동과 의복의 맞음성 만족도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 13-24.
이정임, & 남윤자. (1998). 남성의 클래식 재킷원형에 관한 연구-20 대 초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5), 654-663.
이정임. (2001). *한국인 여성의 표준체형에 관한 연구: 18-24세 여성을 대상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준옥. (2001). *개인별 맞춤거들 제작을 위한 기초 연구: 비만여성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진희, & 김윤희. (2016). 의복관련 맞음새 평가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4), 159-170.
임은진, 하준호, & 이계정. (2017). 대학생의 신체이미지가 다이어트행동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 501-511.
장재임.(2004). *의류 제품 구매과정에 나타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혼합 선택에 관한 연구* (Master's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재은, & 남윤자. (1999). 20 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이상형 (理想型) 에 관한 연구-1992 년도와 1997 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정재은, & 이순원. (1993). 20 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황진숙, &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Alexander, M., Jo Connell, L., & Beth Presley, A. (2005). Clothing fit preferences of young female adult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17*(1), 52-64.
Anderson, L. J., Brannon, E. L., Ulrich, P. V., Presley, A. B., Woronka, D.,

Grasso, M., & Stevenson, D. (2001). Understanding fitting preferences of female consumers: Development of an expert system to enhance accurate sizing selection. *National Textile Center Annual Report,* 198, A08.

Apeagyei, P. R. (2010). Application of 3D body scanning technology to human measurement for clothing Fit. *change*, *4*(7), 58-68.

Ashdown, S. (2000), "Introduction to sizing and fit research", Clemson Apparel Research, Fit 2000: The Fit Symposium. Clemson Apparel Research Center, Clemson, SC, May, available at: http://car.clemson.edu/fit2000/, Quoted in Alexander, M., Jo Connell, L., & Beth Presley, A. (2005). Clothing fit preferences of young female adult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17*(1), 52-64.

Ashdown, S. P., & DeLong, M. (1995). Perception testing of apparel ease variation. *Applied Ergonomics, 26*(1), 47-54.

Ashdown, S., & Loker, S. (2010). Mass-customized target market sizing: Extending the sizing paradigm for improved apparel fit. *Fashion Practice*, *2*(2), 147-173.

Banfield, S. S., & McCabe, M. (2002). An evaluation of the construct of body image. *Adolescence, 37*(146), 373-393.

Bowman, R. L., & De Lucia, J. L. (1992). Accuracy of self-reported weight: A meta-analysis. *Behavior Therapy*, *23*(4), 637-655.

Brown, Z., & Tiggemann, M. (2016). Attractive celebrity and peer images on Instagram: Effect on women's mood and body image. *Body image*, *19*, 37-43.

Bulik, C. M., Wade, T. D., Heath, A. C., Martin, N. G., Stunkard, A. J., & Eaves, L. J. (2001). Relating body mass index to figural stimuli: population-based normative data for Caucasian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5*(10), 1517.

Cash, T. F., & Smolak, L. (Eds.). (2011). *Body image: A handbook of science, practice, and prevention* (2nd ed.). New York:Guilford Press.

Chattaraman, V., & Rudd, N. A. (2006). Preferences for aesthetic attributes in clothing as a function of body image, body cathexis and body siz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4*(1), 46-61.

Chattaraman, V., Simmons, K. P., & Ulrich, P. V. (2013). Age, body size, body image, and fit preferences of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4), 291-305.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in 2007).

Creswell, J. W. (2018). 질적 연구의 30가지 노하우 (한유리 역). 서울: 박영스

토리. (원서출판 in 2015).
Davis, L. L. (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1*(3_suppl), 1199-1205.
De Klerk, H. M., & Lubbe, S. (2008). Female consumers' evaluation of apparel quality: exploring the importance of aesthetic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2*(1), 36-50.
DeLong, M. R. (1987). *The way we look: A framework for visual analysis of dress.*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Dittmar, H. (2007). The costs of consumer culture and the "cage within": the impact of the material "good life" and "body perfect" ideals on individuals" identity and well-being. *Psychological Inquiry*, *18*(1), 23-31.
Fan, J., Yu, W., & Hunter, L. (2004). *Clothing appearance and fit: Science and technology*. Elsevier.
Fardouly, J., & Vartanian, L. R. (2015). Negative comparisons about one's appeara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usage and body image concerns. *Body image*, *12*, 82-88.
Faust, M. E., & Carrier, S. (2009). A proposal for a new size label to assist consumers in finding well-fitting women's clothing, especially pants: an analysis of size usa female data and women's ready-to-wear pants for north american companies. *Textile Research Journal, 79*(16), 1446-1458.
Feather, B. L., Herr, D. G., & Ford, S. (1997). Black and white female athletes' perceptions of their bodies and garment fi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2), 125-128.
Fisher, S. (1970). *Body experience in fantasy and behavior.*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Frith, H., & Gleeson, K. (2008). Dressing the body: The role of clothing in sustaining body pride and managing body distres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5*(4), 249-264.

Gardyn, R. (2003). The shape of things to come. *American Demographics*, *25*(6), 24-24.

Geršak, J. (2002).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qualitative prediction of garments appearance q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14*(3/4), 169-180.

Gleghorn, A. A., Penner, L. A., Powers, P. S., & Schulman, R. (1987).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several measures of body imag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9*(2), 203-218.

Goldsmith, R. E., Moore, M. A., & Beaudoin, P. (1999). Fashion innovativeness and self-concept: a replication. *Journal of Product & Brand Management, 8*(1), 7-18.

Grabe, S., Ward, L. M., & Hyde, J. S. (2008). The role of the media in body image concerns among women: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4*(3), 460.

Griffin, C. (2007). Being dead and being there: research interviews, sharing hand cream and the preference for analysing naturally occurring data'. *Discourse Studies, 9*(2), 246-269.

Groesz, L. M., Levine, M. P., & Murnen, S. K. (2002). The effect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in media images on body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1*(1), 1-16.

Grogan, S. (2017). *Body image: Understanding body dissatisfaction in men, women and children.* (3rd ed.). London: Routledge.

Grogan, S., Gill, S., Brownbridge, K., Kilgariff, S., & Whalley, A. (2013). Dress fit and body image: A thematic analysis of women's accounts during and after trying on dresses. *Body Image*, *10*(3), 380-388.

Grogan, S., Gill, S., Brownbridge, K., Warnock, D., & Armitage, C. J. (2016).

Women's long-term reactions to whole-body scanning: A mixed methods approach.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4*(1), 61-73.

Grogan, S., Siddique, M. A., Gill, S., Brownbridge, K., Storey, E., & Armitage, C. J. (2017). 'I think a little bit of a kick is sometimes what you need': Women's accounts of whole-body scanning and likely impact on health-related behaviours. *Psychology & health*, *32*(9), 1037-1054.

Guest, G., Bunce, A., & Johnson, L. (2006).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An experiment with data saturation and variability. *Field methods, 18*(1), 59-82.

Hausenblas, H. A., Janelle, C. M., Gardner, R. E., & Hagan, A. L. (2002). Effects of exposure to physique slides on the emotional responses of men and women. *Sex Roles*, *47*(11-12), 569-575.

Homan, K. J. (2016).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state version of the Body Appreciation Scale-2. *Body image, 19*, 204-207.

Howarton, R., & Lee, B. (2010). Market analysis of fit preferences of female boomer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4*(2), 219-229.

Hwang, J. (1996). *Relationships between body-cathexis, clothing benefits sought, and clothing behavior, and effects of importance of meeting the ideal body image and clothing attitude*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Tech).

Istook, C. L., & Hwang, S. J. (2001). 3D body scanning systems with application to the apparel industry.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5*(2), 120-132.

Kinley, T. R. (2003). Size variation in women's pa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1*(1), 19-31.

Kinley, T. R. (2010). Fit and shopping preferences by clothing benefits sought.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4*(3), 397-411.

LaBat, K. L., &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Lasi, H., Fettke, P., Kemper, H. G., Feld, T., & Hoffmann, M. (2014). Industry 4.0.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6*(4), 239-242.

Loker, S., Ashdown, S., & Carnrite, E. (2008). Dress in the third dimension: Online interactivity and its new horizo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6*(2), 164-176.

Loker, S., Ashdown, S., & Schoenfelder, K. (2005). Size-specific analysis of body scan data to improve apparel fit.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4*(3), 1-15.

Loker, S., Cowie, L., Ashdown, S., & Lewis, V. D. (2004). Female consumers' reactions to body scann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4), 151-160.

Maphis, L. E., Martz, D. M., Bergman, S. S., Curtin, L. A., & Webb, R. M. (2013). Body size dissatisfaction and avoidance behavior: How gender, age, ethnicity, and relative clothing size predict what some won't try. *Body image*, *10*(3), 361-368.

Markee, N. L., Carey, I. L., & Pedersen, E. L. (1990). Body cathexis and clothed body cathexis: Is there a differe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0*(3_suppl), 1239-1244.

Nam, J., Hamlin, R., Gam, H. J., Kang, J. H., Kim, J., Kumphai, P., ... & Richards, L. (2007). The fashion-conscious behaviours of mature female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1), 102-108.

Otieno, R., Harrow, C., & Lea-Greenwood, G. (2005). The unhappy shopper, a retail experience: exploring fashion, fit and afford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3*(4), 298-309.

Owen, R., & Spencer, R. M. (2013). Body ideals in women after viewing images of typical and healthy weight models. *Body image*, *10*(4), 489-494.

Petroff, A. B., Martz, D. M., Webb, R. M., & Galloway, A. T. (2011). Predicting ideal body mass index: What does clothing size have to do

with it?. *Body image*, *8*(2), 126-134.

Petrova, A., & Ashdown, S. P. (2008). Three-dimensional body scan data analysis: Body size and shape dependence of ease values for pants' fi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6*(3), 227-252.

Pisut, G., & Jo Connell, L. (2007). Fit preferences of female consumers in the USA.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1*(3), 366-379.

Ridgway, J. L. (2018). Before and After Avatar Exposure: The Impact of Body Scanning Technology on Body Satisfaction, Mood, and Appearance Managemen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6*(2), 91-103.

Ridgway, J. L., Parsons, J., & Sohn, M. (2017). Creating a more ideal self through the use of clothing: An exploratory study of women's perceptions of optical illusion garm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5*(2), 111-127.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Rudd, N. A., & Lennon, S. J. (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3), 120-133.

Shim, S. I., & Lee, Y. (2011). Consumer's perceived risk reduction by 3D virtu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9*(12), 945-959.

Shim, S., & Bickle, M. C. (1993). Women 55 years and older as catalog shoppers: Satisfaction with apparel fit and catalog attribu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53-64.

Shin, E., & Baytar, F. (2014). Apparel fit and size concerns and intentions to use virtual try-on: Impacts of body satisfaction and images of models' bod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1), 20-33.

Simmons, K. P., & Istook, C. L. (2003). Body measurement techniques:

Comparing 3D body-scanning and anthropometric methods for apparel application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7(3), 306-332.

Song, H. K., & Ashdown, S. P. (2013). Female apparel consumers' understanding of body size and shape: relationship among body measurements, fit satisfaction, and body cathexi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3), 143-156.

Sontag, M. S., & Lee, J. (2004).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sca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4), 161-177.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 1-8.

Stommel, M., & Schoenborn, C. A. (2009). Accuracy and usefulness of BMI measures based on self-reported weight and height: findings from the NHANES & NHIS 2001-2006. *BMC public health*, *9*(1), 421.

Strauss, A., & Corbin, J.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Thompson, J. K. (1990).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Pergamon Press.

Thompson, J. K., & Dolce, J. J. (1989). The discrepancy between emotional vs. rational estimates of body size, actual size, and ideal body rating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3), 473-478.

Tiggemann, M., & Andrew, R. (2012). Clothing choices, weight, and trait self-objectification. *Body image*, *9*(3), 409-412.

Tiggemann, M., & Lacey, C. (2009). Shopping for clothes: Body satisfaction, appearance investment, and functions of clothing among female shoppers. *Body Image*, *6*(4), 285-291.

Tylka, T. L., & Wood-Barcalow, N. L. (2015). What is and what is not positive body image? Conceptual foundations and construct definition. *Body image*, *14*, 118-129.

Want, S. C. (2009). Meta-analytic moderators of experimental exposure to

media portrayals of women on female appearance satisfaction: Social comparisons as automatic processes. *Body Image*, *6*(4), 257-269.

Webb, J. B., Warren-Findlow, J., Chou, Y. Y., & Adams, L. (2013). Do you see what I see?: An exploration of inter-ethnic ideal body size comparisons among college women. *Body Image, 10*(3), 369-379.

Webb, J. B., Wood-Barcalow, N. L., & Tylka, T. L. (2015). Assessing positive body image: Contemporary approaches and future directions. *Body Image*, *14*, 130-145.

Wood-Barcalow, N. L., Tylka, T. L., & Augustus-Horvath, C. L. (2010). "But I like my body": Positive body image characteristics and a holistic model for young-adult women. *Body Image, 7*(2), 106-116.

Workman, J. E., & Lentz, E. S. (2000). Measurement specifications for manufacturers' prototype bod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8*(4), 251-259.

<부록1> 20대 남성

			7차 사이즈 코리아					피험자 (긴자이)	피험자 (섹큐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측정값	측정값
	⓪_17_BMI	남	867	23.97	3.45	15.90	40.75	28.10	30.10
	몸무게	남	867	72.60	11.64	45.10	129.20	78.80	85.00
	①_003_키	남	867	1739.46	57.20	1577.00	1915.00	1748.89	1756.91
	①_020_허리너비	남	867	280.51	28.27	197.00	409.00		352.02
	①_022_엉덩이너비	남	867	329.35	17.91	268.00	401.00		372.87
	①_027_배꼽수준허리두께	남	867	206.12	28.58	150.00	347.00		283.51
	①_028_엉덩이두께	남	867	223.08	23.38	166.00	335.00		296.47
	①_039_가슴둘레	남	867	962.94	68.44	776.00	1261.00		1110.31
	①_043_배꼽수준허리둘레	남	867	837.09	94.18	640.00	1260.00		1040.45
	①_044_배둘레	남	867	845.20	90.18	640.00	1275.00		1039.56
	①_045_엉덩이둘레	남	867	962.07	63.40	815.00	1212.00		1087.72
	①_089_어깨너비	남	867	401.42	18.61	325.00	479.00		402.71
	①_121_넙다리둘레	남	867	576.72	50.14	437.00	779.00	663.78	
	①_125_장딴지둘레	남	867	382.10	29.06	303.00	477.00	383.32	
	①_126_종아리최소둘레	남	867	223.65	13.39	188.00	292.00	219.57	
	①_132_손목둘레	남	867	160.07	8.31	137.00	205.00	178.01	
비율	허리두께/너비	남	867	0.73	0.05	0.60	0.91		0.81
	배꼽수준허리두께/너비	남	867	0.71	0.05	0.58	0.91		0.79
	엉덩이두께/너비	남	867	0.68	0.05	0.54	0.88		0.80
	가슴두께/너비	남	867	0.66	0.06	0.45	0.92		0.63
크기,길이요인통제	허리너비/몸무게	남	867	3.91	0.33	3.01	6.00		4.14
	배꼽수준허리너비/몸무게	남	867	4.05	0.34	3.11	6.32		4.21
	엉덩이너비/몸무게	남	867	4.61	0.52	3.08	6.66		4.39
	허리두께/몸무게	남	867	2.86	0.25	2.13	4.64		3.35
	배꼽수준허리두께/몸무게	남	867	2.86	0.26	2.15	4.70		3.34
	허리둘레/몸무게	남	867	11.31	0.88	8.83	18.38		12.12
	배꼽수준허리둘레/몸무게	남	867	11.64	0.89	9.06	19.21		12.24
	배둘레/몸무게	남	867	11.76	0.93	9.20	19.38		12.23
	엉덩이둘레/몸무게	남	867	13.45	1.30	9.26	20.02	12.96	
	넙다리둘레/몸무게	남	867	8.04	0.67	5.72	12.37	8.42	
	장딴지둘레/몸무게	남	867	5.34	0.53	3.50	8.20	4.86	
	종아리최소둘레/몸무게	남	867	3.13	0.37	2.09	4.64	2.79	
	손목둘레/몸무게	남	867	2.25	0.28	1.57	3.24	2.26	

<부록2> 20대 여성

			7차 사이즈 코리아					피험자 (듄듄)	피험자 (모아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측정값	측정값
	몸무게	여	668	55.38	8.96	39.00	110.40	53.00	61.00
	①_003_키	여	668	1608.82	50.74	1452.00	1766.00	1670.06	1674.07
	①_018_가슴너비	여	668	276.67	15.52	234.00	368.00	256.52	
	①_019_젖가슴너비	여	668	267.80	18.39	225.00	387.00	239.22	
	①_020_허리너비	여	668	254.14	24.32	198.00	380.00	212.17	
	①_021_배꼽수준허리너비	여	668	276.19	24.83	214.00	436.00	266.12	
	①_022_엉덩이너비	여	668	325.81	19.81	245.00	451.00		361.43
	①_024_가슴두께	여	668	183.61	17.04	142.00	280.00	158.21	
	①_025_젖가슴두께	여	668	209.97	24.14	156.00	329.00	185.00	
	①_026_허리두께	여	668	176.03	24.79	130.00	363.00	138.01	
	①_027_배꼽수준허리두께	여	668	184.89	25.40	135.00	349.00	157.26	
	①_028_엉덩이두께	여	668	212.54	21.63	167.00	324.00		228.50
	①_039_가슴둘레	여	668	849.35	58.85	697.00	1215.00	777.88	
	①_040_젖가슴둘레	여	668	842.12	71.66	671.00	1241.00	785.36	
	①_042_허리둘레	여	668	716.48	75.27	585.00	1080.00	630.11	
	①_043_배꼽수준허리둘레	여	668	767.11	78.14	630.00	1290.00	708.14	
	①_045_엉덩이둘레	여	668	929.10	61.38	791.00	1312.00		984.211
	①_089_어깨너비	여	668	357.39	15.55	299.00	407.00	353.22	
	머리수직길이	여	668	224.57	9.24	186.00	255.00	212.10	200.00
	①_111_머리둘레	여	668	558.47	15.58	515.00	664.00	582.03	557.01
	①_118_발너비	여	668	91.19	5.43	70.00	108.00		90.20
	①_121_넙다리둘레	여	668	548.08	45.71	433.00	797.00	545.27	573.84
	①_125_장딴지둘레	여	668	345.81	27.19	281.00	491.00	338.00	354.90
	①_126_종아리최소둘레	여	668	206.38	11.63	172.00	255.00		202.87
비율	허리두께/너비	여	668	0.69	0.05	0.55	0.96	0.65	
	배꼽수준허리두께/너비	여	668	0.67	0.05	0.54	0.85	0.59	
	엉덩이두께/너비	여	668	0.65	0.05	0.53	0.92		0.63
	어깨너비/키	여	668	0.22	0.008	0.186	0.246	0.21	0.22
	두신지수	여	668	7.17	0.30	6.39	8.44	7.87	8.37
크기,길이요인통제	가슴너비/몸무게	여	668	5.08	0.56	2.90	6.97	4.84	
	젖가슴너비/몸무게	여	668	4.90	0.47	3.01	6.54	4.51	
	허리너비/몸무게	여	668	4.64	0.41	3.21	5.98	4.00	
	배꼽수준허리너비/몸무게	여	668	5.05	0.45	3.32	6.59	5.02	
	엉덩이너비/몸무게	여	668	5.98	0.63	3.66	7.60		5.92
	가슴두께/몸무게	여	668	3.36	0.34	2.32	4.44	2.99	
	젖가슴두께/몸무게	여	668	3.83	0.35	2.58	4.87	3.49	
	허리두께/몸무게	여	668	3.20	0.25	2.39	4.08	2.60	
	배꼽수준허리두께/몸무게	여	668	3.36	0.28	2.55	4.47	2.97	
	엉덩이두께/몸무게	여	668	3.88	0.31	2.72	4.98		3.75
	가슴둘레/몸무게	여	668	15.55	1.46	10.05	20.21	14.68	
	젖가슴둘레/몸무게	여	668	15.39	1.29	10.14	19.75	14.82	
	허리둘레/몸무게	여	668	13.06	1.01	9.50	16.00	11.89	
	배꼽수준허리둘레/몸무게	여	668	13.90	1.10	9.47	18.13	13.36	
	엉덩이둘레/몸무게	여	668	17.01	1.58	11.32	21.06		16.13
	어깨너비/몸무게	여	668	6.58	0.85	3.51	8.92	6.66	
	어깨너비/가슴너비	여	668	1.29	0.06	1.07	1.61	1.38	
	넙다리둘레/몸무게	여	668	10.01	0.81	6.88	11.94	10.29	9.41
	장딴지둘레/몸무게	여	668	6.33	0.57	3.70	8.00	6.38	5.82
	장딴지둘레/넙다리둘레	여	668	0.63	0.30	0.51	0.74	0.62	0.62
	종아리최소둘레/몸무게	여	668	3.79	0.42	2.30	4.90		3.32

<부록3> 30대 여성

			7차 사이즈 코리아					피험자 (박율)	피험자 (이지영)	피험자 (유하늘)	피험자 (이라희)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측정값	측정값	측정값	측정값
	⓪_17_BMI	여	676	22.48	3.51	14.81	43.28		15.15	20.51	21.80
	몸무게	여	676	57.72	9.41	36.80	106.90	50.70	48.00	51.20	58.00
	①_003_키	여	676	1602.41	53.35	1428.00	1776.00		1784.92	1582.52	1628.00
	목뒤높이	여	676	1357.65	50.02	1206.00	1517.00		1518.96		
	①_020_허리너비	여	676	265.14	27.97	203.00	408.00	242.21	226.60		
	①_021_배꼽수준허리너비	여	676	288.00	27.30	210.00	433.00	313.95	279.14		
	①_022_엉덩이너비	여	676	327.49	18.73	280.00	412.00	347.12			325.00
	①_026_허리두께	여	676	191.29	28.88	135.00	337.00	167.67	157.89		
	①_027_배꼽수준허리두께	여	676	201.10	30.02	139.00	361.00	219.40	161.79		
	①_028_엉덩이두께	여	676	219.85	23.90	168.00	361.00	222.83			224.00
	①_039_가슴둘레	여	676	868.91	61.04	715.00	1105.00				850.00
	①_042_허리둘레	여	676	761.11	87.02	562.00	1187.00	660.26	613.47		
	①_043_배꼽수준허리둘레	여	676	812.25	88.65	591.00	1274.00	865.24	684.50		
	①_045_엉덩이둘레	여	676	936.72	62.22	782.00	1265.00	938.12			920.00
	①_089_어깨너비	여	676	358.09	14.99	317.00	410.00	350.57	354.25		325.00
	위팔둘레	여	676	266.10	28.34	200.00	425.00				290.00
	①_118_발너비	여	676	93.28	4.98	74.00	115.00				108.00
	①_121_넙다리둘레	여	676	554.42	47.30	434.00	780.00	551.73			567.00
	①_125_장딴지둘레	여	676	348.07	26.75	283.00	478.00	344.52		344.90	345.00
	①_126_종아리최소둘레	여	676	207.84	12.73	177.00	258.00	207.27		223.31	218.00
	팔길이	여	676	545.91	24.70	435.00	613.00		542.50		
	다리가쪽길이	여	676	976.95	40.12	848.00	1123.00		1120.87		
비율	허리두께/너비	여	676	0.72	0.06	0.53	0.97	0.69	0.70		
	배꼽수준허리두께/너비	여	676	0.70	0.05	0.58	0.93	0.70	0.58		
	엉덩이두께/너비	여	676	0.67	0.05	0.54	0.95	0.64			0.69
크기,길이요인통제	허리너비/몸무게	여	676	4.64	0.40	3.35	6.02	4.78	4.72		
	배꼽수준허리너비/몸무게	여	676	5.05	0.43	3.55	6.46	6.19	5.82		
	엉덩이너비/몸무게	여	676	5.77	0.63	3.63	7.61	6.85			5.60
	허리두께/몸무게	여	676	3.33	0.28	2.64	4.48	3.31	3.29		
	배꼽수준허리두께/몸무게	여	676	3.50	0.30	2.78	4.67	4.33	3.37		
	엉덩이두께/몸무게	여	676	3.85	0.30	3.01	5.06	4.40			3.17
	허리둘레/엉덩이둘레	여	676	0.81	0.06	0.69	1.05	0.70			
	허리둘레/몸무게	여	676	13.31	1.04	9.61	17.05	13.02			
	배꼽수준허리둘레/체중	여	676	14.20	1.06	10.59	17.91	17.07			
	엉덩이둘레/몸무게	여	676	16.47	1.56	11.63	21.25	18.50			15.86
	넙다리둘레/몸무게	여	676	9.72	0.82	7.23	12.49	10.88			9.78
	넙다리둘레/허리둘레	여	676	0.73	0.05	0.57	0.86	0.84			
	장딴지둘레/몸무게	여	676	6.12	0.58	4.20	8.00	6.80		6.74	5.95
	종아리최소둘레/몸무게	여	676	3.66	0.41	2.41	5.00	4.09			3.76
	위팔둘레/몸무게	여	676	4.66	0.37	3.64	5.84				5.00

<부록4> 50대 여성

			7차 사이즈 코리아					피험자 (황지원)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측정값
	몸무게	여	356	58.76	7.64	40.00	86.20	56.02
	①_018_가슴너비	여	356	283.52	14.55	242.00	335.00	298.89
	①_019_젖가슴너비	여	356	287.60	18.88	241.00	356.00	275.34
	①_024_가슴두께	여	356	205.68	17.81	160.00	250.00	230.50
	①_025_젖가슴두께	여	356	239.24	22.94	180.00	320.00	275.14
	①_039_가슴둘레	여	356	905.95	52.70	735.00	1075.00	956.01
	①_040_젖가슴둘레	여	356	928.11	68.64	754.00	1155.00	966.70
비율	가슴둘레/젖가슴둘레	여	356	0.98	0.03	0.88	1.09	0.989
	가슴두께/너비	여	356	0.73	0.05	0.59	0.88	0.77
크기,길이요인통제	젖가슴둘레/몸무게	여	356	15.93	1.22	12.63	20.15	17.25
	젖가슴너비/몸무게	여	356	4.94	0.42	3.77	6.55	4.92
	가슴둘레/몸무게	여	356	15.57	1.27	12.31	19.75	17.06
	가슴너비/몸무게	여	356	4.88	0.46	0.37	6.45	5.33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Clothing Fit and Subjectively Evaluated Body

Lee Yun Kyu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focused on 'Subjectively Evaluated Body' for the consumer-oriented clothing fit research as the demands of fashion industry change in the coming age of 'Industry 4.0'. For this purpose, a total of 9 'Majored in Clothing & Textile or Fashion Design who is Korean and residing in South Korea' people were recruited.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3D body scanning which is to grasp the relations between 'Actual Body' and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ere conducted for this exploratory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their lived-experience and specificity of clothing and body research experience. The obtained research data were analysed through interpretative approach using inductive thematic analysis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fic involvement of 3D body scanning and the ideal body were reveal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Body' and

'Subjectively Evaluated body'. Although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Actual Body' which is obtained through 3D body scanning process and 'Subjectively Evaluated Body' had been confirmed once again, the evaluation of one's body was assessed through relative and complex comparisons of body parts rather than evaluating a single body part. Wearing underwear and accessories such as boosting up the breast size or height according to the one's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3D body scanning could be the possible option for the pursuing the consumer-oriented good clothing fit according to the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The ideal body that appears caused b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Body' and the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ere influenced by the comparisons with others and celebrity, and the effect of media as many other literature states. In addition to this, the evaluation of one's body within itself could generate the ideal body as well. The effects of Western culture and the specificity of Korean ideal beauty upon the ideal body were found, and the clothing was a direct cause and standard of formation of ideal body. Clothing selection was a direct result of 'Subjectively Evaluated Body'.

Second, the selection of specific clothing according to 'Subjectively Evaluated Body' appeared. The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hich resulted from the relative and complex evaluation of each part of the body, led to the selection and avoidance of the item, length, and silhouette of particular garments and accessories. Correctional garments which has the function of body shape correction through wearing them were not the selected choice of clothing based on 'Subjectively Evaluated Body'. Discomfort, direct bod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as underwear we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correctional role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was found beyond the selection of specific clothing according to 'Subjectively Evaluated Body'. The clothing size fit resulting from the instability of the clothing sizing system had led to the selection and avoidance of certain brands and the 'Free Size' was one of the solutions to meet the problem for the clothing fit induced by each individual's body size. The clothing size fit was the cause of the evaluation of the body itself, however,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the case of the functional clothes or ordinary fashion clothes when assessing the relationships of the clothing size fit and the body. As consumers choose and curate their own clothing fit, and the classic suits were replaced by the easy casual wears as lifestyle change, the standards of good clothing fit in relation with body had been changed. Thus, it led to the low relations i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Although body management behaviors such as exercise and diet helped to reduce body dissatisfaction, there was a role of clothing in mitigating body dissatisfaction as it has more instant and short-term effects. In pursuing the fashion image, it was possible to engage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rough the selection and avoidance of exercise and through the clothing choices at the same time. Thus, the body management behavior and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were coexisting concept. While the avoidance and involvement of fashion trends were involved with the evaluation of one's body,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had low relations when the fashion trends itself did not reveal the body. Purchase frequency, price, and points were once again confirmed to be highly related to one'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and seasons, T.P.O., pursued

fashion image expressed through adjectives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fit and the body. For applying 'Subjectively Evaluated Body' on the clothing fit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each consumer should solve the clothing fit problem induced by their own body evaluation through repairing clothes or returning to the previous made-to-measure system. However,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applying 'Subjectively Evaluated Body' on the clothing fit research, and if there is a way to assess each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the mass customization and personalization of the clothing fit production based on each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would be realized. In addition, it had the potential to play a role in helping to have positive body eval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ulti-layered clothing fit and the multi-dimensional body centered on 'Subjectively Evaluated Bod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providing the better clothing fit that consumers want as assessing and applying each consumer's 'Subjectively Evaluated Body' in pattern-making and production of clothes.

Keywords: Consumer-Oriented, Clothing fit, Actual Body, Subjectively Evaluated Body

Student Number: 2016-21681